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 학위논문

알바 알토 건축에서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of ‘Body-realm' in Alvar Aalto's Architecture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최 동 관

[국문초록]

알바 알토 건축에서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 동 관
지도교수 김 광 현

본 연구는 알바 알토 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 주변의 감각적인 환경인 '신체-영역'을 정의하고,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집합하여 건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성과 집합성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알바 알토 건축이 갖는 현대적인 가치를 알리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알바 알토의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건축의 내부 공간에 주목한다. 혹독하고 긴 겨울을 가지는 핀란드의 기후적인 특성상 알토의 건축은 안락하고 인간다운 내부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사람들이 따뜻함과 안락함을 느끼는 것은 그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다양한 기능, 말하자면 감각, 심리, 움직임 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건축의 출발점, 즉 일종의 공간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신체-영역'은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물들과 신체가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하는 영역이다. 신체-영역은 사물과 신체 사이에 형성되는 감각적인 관계에서 시작한다. 알토는 가구, 문, 문손잡이 등의 작은 사물들도 세심하게 디자인하였는데, 이런 점이 알토 건축의 특수성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건물을 구성하는 작은 사물들과 건축 요소들이 건축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의 건축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건축 형태, 공간 구성 방식 등에 집중했지만, 그의 건축의 본질은 여러 크고 작은 사물들이 모여 구성하는 내부 공간에 있다. 알토의 건축은, 다른 많은 건축가들의 건축에 비해, 건물의 내부 공간을 채우는 다양한 사물들이 감각적으로 신체와 관계 맺거나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알토의 건축에서 사람이 하는 경험의 대부분은 이런 사물들 또는 사물들이 나타내는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성과 집합성은 알바 알토 건축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근대 건축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집합으로 여기고 사람 개인들을 평균인으로 생각하던 것에 비해, 알토는 개체들의 특성인 개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그의 사상은 건축에서 개별적인 것들의 개성을 지키면서 집합하여 건물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개별성과 집합성은 사물의 생산 방식에서부터 사물과 신체의 관계, 나아가 영역들이 모여 한 건물을 구성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견된다.

한편 알바 알토는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구조물인 건축을 '신체에 가장 가까운 환경'부터 시작해서 세심하게 만듦으로써 인간다운 건축을 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알토는 환경을 신체와 맞닿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신체와 가까운 건축 공간, 큰 공간으로 확장되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바 알토의 건축은 '작은 사람(a little man)'을 위한 따뜻한 건축이다. 길거리에 있는 약하고 작은 사람들까지도 위하는 건축을 추구했던 그는 그만큼 개별적인 것의 가치를 존중하였다. 이런 그의 건축은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현대 건축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키워드 : 알바 알토, 사물, 신체, 영역, 개별성, 집합성
학 번 : 2015-21123

목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ii
그림목차 ····· v
표 목 차 ····· viii

1. 서론 ····· 00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01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003
1.2.1. 연구의 대상 ····· 003
1.2.2. 연구의 방법 ····· 004
1.2.3. 용어의 정리 ····· 005
1.3. 연구 흐름도 ····· 006

2. 알바 알토의 건축적 사상 ····· 007
2.1. 사물에 의한 건축의 인간화 ····· 008
2.1.1. 사람과 자연을 중재하는 건축 ····· 008
2.1.2. 사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물 ····· 012
2.2. 건축의 기본 단위인 ‘신체-영역’ ····· 015
2.2.1. 활동의 집합으로 만드는 공간 ····· 015
2.2.2. 유기적 활동 단위(Organic Working Unit) ····· 017
2.2.3. 숲의 공간을 만드는 ‘신체-영역’ ····· 019
2.3. 개별성과 집합성의 개념 ····· 022
2.3.1. 작은 사람(the little man)을 위한 건축 ····· 023
2.3.2. 유연한 표준화(flexible standardization) ····· 025
2.3.3. 소결 ····· 027

3. 건축 요소의 개별성과 집합성 ····· 029

3.1. 움직이는 신체를 포함하는 영역을 갖는 건축 요소 ····· 030
3.1.1. 문과 문손잡이: 수평적 영역 ····· 030
3.1.2. 계단: 수직적 영역 ····· 043

3.2. 신체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 영역을 갖는 건축 요소 ····· 050
3.2.1. 창문: 건물 내부와 외부 ····· 050
3.2.2. 기둥: 주위 영역 ····· 055

3.3. 신체와 밀접하게 맞닿는 건축 요소 ····· 059
3.3.1. 가구 ····· 059

3.4. 소결 ····· 064

4.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 ····· 066

4.1. '신체-영역'의 형성 ····· 067
4.1.1. 감각에 의한 사물들의 집합 ····· 068
4.1.2. 요소 공유와 중심성을 갖는 영역 형성 ····· 070
4.1.3.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 ····· 074

4.2. '신체-영역'의 집합 양상 ····· 081
4.2.1. 건축 요소에 의한 공간적 통합 ····· 081
4.2.2. 인접관계 ····· 083
4.2.3. 건축 요소에 의한 맥락적 통합 ····· 085

4.3. 소결 ····· 088

5. 결론 ····· 090

참 고 문 헌 ····· 092
ABSTRACT ····· 094

그림목차

[그림 2-1] 수태고지(L'Annunziazione) ····· 009
[그림 2-2] 르 코르뷔지에의 1925년 신정신관 ····· 010
[그림 2-3] Vaino House의 평면과 홀의 스케치 ····· 011
[그림 2-4] 세이나찰로 타운홀의 내부와 외부 ····· 011
[그림 2-5] 무라찰로 여름별장 내부와 외부 ····· 011
[그림 2-6] 비퓨리 도서관 빛 환경 스케치 ····· 012
[그림 2-7] 비퓨리 도서관 열람실 ····· 012
[그림 2-8] 병실 환경 스케치 ····· 014
[그림 2-9] 파이미오 요양원 병실 ····· 014
[그림 2-10] 1930년 스톡홀름 엑스포에 전시된 알토의 견본 아파트 ····· 015
[그림 2-11] 루이스칸의 room 스케치 ····· 016
[그림 2-12] 아들러주택 스케치 ····· 016
[그림 2-13] 킴벨 미술관 스케치 ····· 016
[그림 2-14] 원양선 관제실 ····· 018
[그림 2-15] Heilig-Geist Church 스케치 ····· 018
[그림 2-16] 파리 엑스포 핀란드기념관 계획안 도면과 투시도 ····· 019
[그림 2-17] 핀란드의 숲 ····· 020
[그림 2-18]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 ····· 020
[그림 2-19] 유바스큘라 대학의 배치도와 강의동의 홀 ····· 023
[그림 2-20] 헬싱키 아카데미아 서점의 문손잡이 ····· 024
[그림 2-21] 세이나요키 타운홀의 문손잡이 ····· 024
[그림 2-22] 폐허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건축 본능 ····· 025
[그림 2-23]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다양한 가구 ····· 026
[그림 3-1] 현관문을 등지고 바라본 모습 ····· 031
[그림 3-2] 현관문 ····· 031
[그림 3-3] 현관문 입면도 ····· 031
[그림 3-4] 현관문의 손잡이와 개구부 ····· 032
[그림 3-5] 핀란드 전통 주택의 나무 문손잡이 ····· 032
[그림 3-6] 사보아 주택의 현관문 ····· 032
[그림 3-7] 라로슈 주택의 현관문 ····· 032
[그림 3-8] 온실과 계단 앞의 문들 ····· 033
[그림 3-9] 온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 ····· 034
[그림 3-10] 온실 밖 테라스 ····· 034
[그림 3-11] 이무블 빌라 ····· 035
[그림 3-12] 라로슈 주택 내부 ····· 035
[그림 3-13] 사보아 주택 내부 ····· 035

[그림 3-14] 사우나 건물의 입면 계획 ····· 036
[그림 3-15] 사우나 문 ····· 036
[그림 3-16] 사우나 앞 공간과 수영장의 모습 ····· 037
[그림 3-17] 정원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문의 모습과 구상 스케치 ····· 037
[그림 3-18]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현관문 (좌: 도서관, 우: 주민사무소와 의회) ····· 038
[그림 3-19] 세이나찰로 현관문 손잡이 ····· 039
[그림 3-20]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내부 방들의 문 (좌: 민원실, 우: 상담실, 사무실) ··· 039
[그림 3-21] 세이나찰로 시청사 지층 상가의 문 ····· 040
[그림 3-22] 마이레아 주택의 문이 만드는 영역의 집합 ····· 042
[그림 3-23] 마이레아 주택의 부분을 구성하는 문들 ····· 042
[그림 3-24] 마이레아 주택 주계단의 사진과 도면 ····· 043
[그림 3-25] 낙수장 계단 ····· 043
[그림 3-26] 마이레아 주택 주계단 상세도 ····· 044
[그림 3-27] 마이레아 주택 주계단 ····· 044
[그림 3-28] 르 코르뷔지에의 경사로 (좌: 라로슈 주택, 우: 사보아 주택) ····· 045
[그림 3-29] 사보아 주택의 나선계단 ····· 045
[그림 3-30] 세이나요키 시청사 홀의 주계단과 기타 계단 ····· 046
[그림 3-31]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계단 ····· 046
[그림 3-32] 세이나찰로 시청사 야외 계단 (좌: 서쪽 계단, 우: 동쪽 계단) ····· 046
[그림 3-33] 마이레아 주택 스튜디오 계단의 모습과 도면 ····· 047
[그림 3-34] 마이레아 주택 외부 계단의 모습과 도면 ····· 047
[그림 3-35] 계단 끝에서 시선을 열어주는 디자인 (상단: 세이나요키 극장, 좌하: 라티 교회 (Lahti Church), 우하: 헬싱키 핀란디아 홀) ····· 049
[그림 3-36]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창문 ····· 051
[그림 3-37] 마이레아 주택 베이 윈도우 ····· 051
[그림 3-38] 마이레아 주택 큰 거실의 창문 ····· 052
[그림 3-39] 큰 거실을 둘러싸는 숲 ····· 052
[그림 3-40] 마이레아 주택 스튜디오의 창문 ····· 053
[그림 3-41] Gallen-Kallela 주택 거실의 창문(좌측) ····· 053
[그림 3-42]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중정 ····· 053
[그림 3-43] 창문을 통해 전해지는 자연 ····· 053
[그림 3-44] 창문을 연 모습 ····· 054
[그림 3-45] 창문을 따라 자란 식물이 만드는 공간의 분위기 ····· 054
[그림 3-46] 세이나찰로 시청사 의회 회의장 ····· 055
[그림 3-47] 회의장 창문 ····· 055
[그림 3-48] 마이레아 주택 실외 기둥들 (a~g, b', c', c'', c''') ····· 056
[그림 3-49] 현관문 앞 캐노피 기둥들 ····· 057
[그림 3-50] 캐노피 기둥들 상세 사진 ····· 057
[그림 3-51] 온실 앞 캐노피 기둥들 ····· 057
[그림 3-52] 온실 앞 캐노피 공간 ····· 057
[그림 3-53] 사우나로 이어지는 캐노피의 기둥들 ····· 058

[그림 3-54] 알토가 디자인 한 의자(1947) ····· 059
[그림 3-55]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책상의 집합 ····· 059
[그림 3-56] 여러 의자들(좌: 바르셀로나 의자, 중: 와실리 의자, 우: 코르뷔지에 의자) 060
[그림 3-57] 개별 책상들이 결합될 수 있는 디자인(좌: 로바니에미 도서관, 우: 세이나요키 극장) ····· 061
[그림 3-58] 마이레아 주택의 소파(좌: 서재, 우: 거실) ····· 063
[그림 3-59] 마이레아 주택의 목제 가구 (좌: 큰 거실, 우: 온실) ····· 063
[그림 3-60] 마이레아 주택의 알토 전형적인 가구 (좌: 서재, 우: 식당 앞 공간) ····· 063
[그림 4-1]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신체-영역 형성 요소 ····· 069
[그림 4-2] 마이레아 주택 서재의 신체-영역 형성 요소 ····· 069
[그림 4-3] 세이나요키 도서관 서가의 신체-영역 형성 요소 ····· 069
[그림 4-4]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신체-영역들의 집합 ····· 070
[그림 4-5] 사보아 주택의 거실 ····· 071
[그림 4-6] 거실에서 바라본 테라스 ····· 071
[그림 4-7] 마이레아 주택 서재의 신체-영역의 집합 ····· 072
[그림 4-8] 세이나요키 도서관 선큰 독서 공간의 신체-영역의 집합 ····· 073
[그림 4-9] 마이레아 주택의 바닥 재료 ····· 075
[그림 4-10] 마이레아 주택 1층 바닥 재료계획 ····· 075
[그림 4-11]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복도 바닥 재료 ····· 075
[그림 4-12] 르 코르뷔지에 건물의 바닥 (좌: 사보아 주택 홀, 우: 라로슈 주택 홀) ····· 076
[그림 4-13] 사보아 주택의 바닥의 줄눈과 이를 표현한 평면 ····· 076
[그림 4-14]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다양한 조명 기구 ····· 077
[그림 4-15] 마르세유 위니테 다비타시옹의 조명 ····· 078
[그림 4-16] 공간만을 밝히는 조명 (좌: 사보아 주택 거실, 우: 라로슈 주택의 방) ····· 078
[그림 4-17] 알바 알토가 설계한 주택에서 자연 요소를 은유하는 장식들(좌:Kokkonen 주택, 우:알바알토 주택) ····· 079
[그림 4-18] 마이레아 주택 거실 천장에 의한 공간적 통합 ····· 081
[그림 4-19] 세이나찰로 시청사 복도의 신체-영역들의 공간적 통합 ····· 082
[그림 4-20] 신체-영역의 맥락을 통합하는 천장의 다양한 빛 ····· 085
[그림 4-21] 신체-영역의 맥락을 통합하는 다양한 기둥 ····· 086

표 목 차

[표 1-1] 연구 대상이 되는 주요 작품과 글 ····· 003
[표 4-1]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들이 일으키는 감각과 행동 ····· 074
[표 4-2]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인접 신체-영역 ····· 083
[표 4-3] 세이나찰로 시청사 복도의 인접 신체-영역 ····· 084
[표 4-4]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 정리 ····· 088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1.2.2. 연구의 방법
1.2.3. 용어의 정리
1.3 연구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알바 알토의 건축이 갖는 개별성과 집합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그가 추구했던 '인간다운' 건축이 실현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개별성이란 사전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각각 따로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알토가 그의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개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은 당시 건축이 효율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여러 차원에서 표준화와 획일화를 지향하던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동시에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일반적인 근대 건축 공간과 인간의 생활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걱정하며 건축을 인간화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알토는 르 코르뷔지에나 아돌프 로스처럼 자신의 건축 작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건축 사상을 이론화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였고 저널에 짧은 글들을 기고하는 정도로 꾸준히 건축에 대한 단상들을 표현하곤 했다.

한편 알바 알토는 사람 개개인을 존중해주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 주변의 작은 환경에 대한 고려에서 건축을 시작하였다. 결국 신체 주변의 작은 영역들로 공간을 구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건물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알토는 건물을 이루는 사물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주목하고, 물질로 만들어지는 건축, 즉 물질세계를 인간의 삶에 조화롭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비인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건축을 다시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알토 건축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편안함을 주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알바 알토의 건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건축 형태나 공간 분석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알토 스스로가 본인의 건축적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이론화하는 데에 큰 뜻을 두지 않았으며, 그보다 실제 건축 설계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또한 알토가 사용하는 형태 어휘나 공간 구성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향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알바 알토의 건축의 본질은 그가 일생동안 추구했던 '건축의 인간화'에 있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그의 건축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개별성과 집합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언술들을 바탕으로 그가 추구한 건축적 사상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사물 자체가 만드는 영역과 신체와 사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신체-영역들의 개별성과 집합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알토가 파이미오 요양원을 통해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1928년 이후의 주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알토가 설계하여 실제로 지어진 작품뿐만 아니라 계획안들도 포함하여 건축 과정에서 발견되는 스케치, 도면, 투시도 등의 자료들을 두루 포함한다. 그 중에서 알토가 설계한 주택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마이레아 주택과 세이나찰로 시청사, 세이나요키 도서관을 주요 사례로 분석한다. 또한 건축물의 형태나 구축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알토의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 공간을 이루는 영역을 비롯하여 문, 문손잡이, 창문, 가구, 계단, 기둥 등 개별적인 건축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물들이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작품과 글은 다음과 같다.

연도	주요 작품	주요 글
1925	Vaino Aalto 주택(1925), 비퓨리 도서관(1927~34)	"From Doorstep to Livingroom"(1926)
1930	스톡홀름 엑스포 견본 아파트(1930), 파이미오 요양원(1932)	"Housing Problems"(1930)
1935	파리 엑스포 핀란드관(1937), 마이레아 주택(1937~39)	"Rationalism and Man"(1935), "Influence of Structure and material on Contemporary Architecture"(1938)
1940	MIT 베이커 기숙사(1946~49)	"Humanizing of Architecture"(1940), "The Reconstruction of Europe Is the Key Problem for the Architecture of Our Time"(1941)
1950	세이나찰로 시청사(1950~52) 무라찰로 여름별장(1953)	"The Enemies of Good Architecture" (1950),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 (1955)
1955	세이나요키 시청사(1958~60)	"More Beautiful Housing"(1957)
1960	세이나요키 도서관(1960~65)	

표 1-1 연구 대상이 되는 주요 작품과 글

1.2.2. 연구의 방법

알바 알토가 생각한 건축의 지향성과 건축 방식을 밝히기 위해 2장에서는 그의 언술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함께 분석한다. 먼저 알토가 건물을 이루는 '사물'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사물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지 밝힌다. 그리고 알토의 건축에서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신체-영역'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밝히기 위해 루이스 칸의 건축의 시작인 '방'과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둘의 관계와 비교한다. 2장의 끝에서는 알토의 언술을 바탕으로 그가 건축에서 개별성과 집합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이유와 목적을 실제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본다. 또한 그가 개별성과 집합성의 조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디자인하였는지 밝힌다.

3장은 알토의 건축에서 크고 작은 사물들, 즉 건축 요소들의 개별성과 집합성을 살펴본다. 건축 요소를 신체와의 관계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신체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영역을 형성하는 건축 요소, (2)신체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 영역을 형성하는 건축 요소, (3)신체와 가장 직접 접촉하는 건축 요소. 건축 요소의 개별성과 집합성은 알토의 주요 건축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 요소가 신체와 갖는 다양한 관계, 그리고 건축 요소가 그것이 놓이는 주변 공간의 환경 또는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리한다. 알토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 요소들의 개별성을 더욱 명확히 서술하기 위해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르 코르뷔지에를 비롯한 건축가들의 건축 요소와 비교한다.

4장은 건축 공간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사물들과 관계 맺으면서 형성되는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을 살펴본다. 알토의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사진과 도면을 분석하여 개별 신체-영역이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신체-영역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정리해본다. 신체-영역은 항상 주변의 다른 신체-영역들과 요소를 공유하면서 모여들어 중심성을 갖는 더 큰 신체-영역을 형성한다. '신체-영역'이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만 나타나는 특수성을 가짐을 보이기 위해, 알토와 동시대에 활동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과 비교한다. 4.2절에서는 신체-영역이 집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고 나아가 건물 전체를 완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신체-영역이 여러 층위에서 보이는 개별성과 집합성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밝힌다.

1.2.3.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별성(individuality)과 집합성(collectivity)이라는 용어는 알바 알토가 1955년 비엔나 건축가 협회에서 했던 강연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에서 언급한 individualism과 collectivism에서 차용했다. 그중 collectivism, 나아가 collectivity는 일반적으로 각각 집단주의, 집단성으로 번역되곤 한다. 하지만 집단주의라는 용어가 갖는 사회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을 덜어내고 중립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용어를 각각 집합주의, 집합성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집합성이란 개체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장에서 주로 다루는 '신체-영역'은 연구자가 만든 조어로, 신체가 건축 공간에서 여러 사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을 의미한다. 건축을 이루는 사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대상물이 되지만 신체-영역은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공간적인 개념을 내포한다. 이는 사물 하나가 주변에 갖는 일반적인 영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편 건축가 또는 이론가의 이름은 처음 등장 시 원어와 한국어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한국어만을 표기한다. 처음 언급될 때에는 성과 이름을 모두 밝히고, 반복되어 나타날 경우에는 주로 불리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한국어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어만을 표기한다. 외국 지명(地名)의 경우 인물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원어와 함께 한국어를 병기하며, 이후 한국어만을 표기한다. 지명의 경우, 한국어 표기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다수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표기한다.

1.3. 연구 흐름도

2장 알바 알토의 건축적 사상

사물에 의한 건축의 인간화

건축의 기본 단위인 '신체-영역'

개별성과 집합성의 개념

알바 알토의 글과 강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제시하고, 사례로서 그와 관련된 실현된 건물의 구상 스케치, 도면, 사진 등을 살펴본다.

3장 건축 요소의 개별성과 집합성

움직이는 신체를 포함하는 — 문, 계단

신체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 — 창문, 기둥

신체와 밀접하게 맞닿는 — 가구

건축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사물들과 건축 요소들이 형성하는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을 분석한다. 사물과 주변 영역의 관계를 살펴본다.

4장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

사물 — 신체-영역 — 공간 — 건물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 공유와 중심성을 갖는 영역 형성

'신체-영역'의 집합 양상

신체-영역의 형성과정과 집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신체-영역이 여러 단계에서 갖는 개별성과 집합성을 밝힌다.

5장 결론

신체-영역은 건물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사물들이 신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합되어 '공간화'되는 개념이다.

2. 알바 알토의 건축적 사상

2.1. 사물에 의한 건축의 인간화
2.1.1. 사람과 자연을 중재하는 건축
2.1.2. 사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물
2.2. 건축의 기본 단위인 '신체-영역'
2.2.1. 활동의 집합으로 만드는 공간
2.2.2. 유기적 활동 단위 (Organic Working Unit)
2.2.3. 숲의 공간을 만드는 '신체-영역'
2.3. 개별성과 집합성의 개념
2.3.1. 작은 사람(the little man)을 위한 건축
2.3.2. 유연한 표준화 (flexible standardization)
2.3.3. 소결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건축의 인간화'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이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가던 세계적 흐름 속에서, 그는 건축을 다시 인간다운 것으로 돌려놓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크게 (1)물질과 신체의 관계, (2)그 관계에서 생겨나는 신체 주변의 환경인 신체-영역, (3)산업이 기계화되고 표준화되어가는 시대에 건축이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individual creative work)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개별성과 집합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알바 알토의 여러 글과 강연에서 있었던 언술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건축물들을 스케치와 도면, 사진들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의 건축 사상을 밝히고자 한다.

2.1. 사물에 의한 건축의 인간화

알바 알토는 건축은 인간 생활의 대부분을 다루며, 그 안에 그것을 담아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진정한 의미의 '기능주의' 건축이란 기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1)]

그는 자신의 건축 철학을 간단히 정의하거나 이론화하려는 욕심은 없었지만, 그의 언술들과 완성된 건물들을 살펴보면 그가 '건축의 인간화(humanization)'를 본인 건축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사람의 몸이 여러 방식으로 상대하게 되는 건축의 '물질'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보았고 물질과 신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집중했다. 사물은 신체의 감각, 심리적 작용에 의해 신체와 관계를 맺는다. 알토는 이 관계들을 종합하여 건축을 이루면 건축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2.1.1. 사람과 자연을 중재하는 건축

알토는 건축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여러 현상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해주고, 경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건축이 사람과 자연의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올바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상적인 건축의 결과물이란 사람(man)에게 긍정적인 영향들을 모아주는(collect) 동시에 나쁘고 적합하지 않은(unfavorable) 영향들로부터 보호해주는(shelter) 도구(instrument)로서 작동하는 건물로 정의할 수 있다."[2)]

여기서 그는 건물을 이루는 물질과 신체의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자연의 여러 현상들 중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은 전달해주고(mediate), 반대로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신체에 불편한 것은 차단해줘야

---

1) Alvar Aalto(1940), "The Humanizing of Architecture", in Göran Schildt ed., *Alvar Aalto in His Own Words*, New York: Rizzoli, 1997, p.102

2) Alvar Aalto(1941), "The Reconstruction of Europe Is the Key Problem for the Architecture of Our Time", in Ibid., p.153

한다. 게다가 사람에게 좋은 현상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더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다.

이 언술에서 가장 핵심인 단어는 '영향'이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로, 이 표현은 결국 알토가 생각하는 건축이 중재해야 할 대상은 사람의 감각, 심리 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알토는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지는 건물이 인간의 감각, 심리적 반응이나 행동 등을 통하여 인간과 관계 맺는다는 점에 집중했다.

앞서 언급한 알바 알토의 사상은 첫째로 건물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가 설계한 건물 외부의 자연과 내부 공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축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어떠한 경계를 만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알토는 『From Doorstep to Living Room』(1926)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한다.[3] 핀란드의 건축은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고 혹독한 북유럽의 기후 때문에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성격으로 발전해있었다. 그는 그런 핀란드 건축의 전통적인 특성을 재고하고 유럽의 근대적인 경향을 핀란드에 소개하고자 하였다.

해당 글에서 그는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의 수태고지(L'Annunziazione)라는 그림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건물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이 그림이 이상적인 '방으로의 들어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림의 좌측 화단은 외부를 의미하고 성모와 천사 뒤편의 개구부는 내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이 위치한 아케이드 공간이 바로 알토가 만들고자 했던 내부와 외부의 전이공간을 의미한다.

그림 2-1 수태고지(L'Annunziazione)

그림에서 보이는 전이공간은 내부와 외부에 모두 연결되어있고 폐쇄적이지 않다. 외부에 속하는 공간이지만 화단인 외

3) 알토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지중해 지역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중정에 매료되었다. 중정이 외부 공간으로서 자연과 건물 내부 공간 사이에서 환경을 조율하는 감각을 핀란드에 소개하고 싶어 했다.

부 바닥과는 구분되는 바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부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내부의 기능이 밖으로 연속되어 나올 수 있다, 전이공간은 그 자체로서 사람이 활동할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알토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 개념을 건물의 벽으로 한정짓지 말고 건물이 정원 같은 외부공간을 만들면서 이것을 건물과 도시공간의 경계로서 생각하자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 외부공간을 내부 공간과 연계하여 건물 내부에 가상의 외부를 만드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결국 그는 건축이 내부와 외부 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환경의 조정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르 코르뷔지에의 1925년 신정신 파빌리온(pavillon de l'esprit nouveau 1925)의 발코니 정원을 건물의 내부 공간과 정원의 이상적인 사례로서 언급하면서, 외부에 속하는 공간이지만 건물 내부의 기능을 내포하는 공간이기도 한, 전이공간의 속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알토는 코르뷔지에가 제안한 이런 공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사는 기계로서의 집'이라는 그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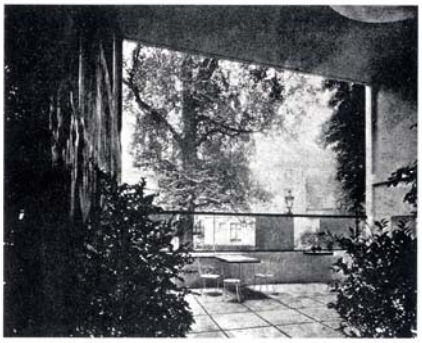


그림 2-2 르 코르뷔지에의 1925년 신정신관

알토는 주택에서 사람의 정신적인 기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중앙의 홀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주택의 지붕 아래에 있는 '야외 공간(open-air)'을 상징한다고 말하였다.[5)] 알토가 건물에 실내와 실외의 전이공간을 만들려고 한 목적은 자연을 건물 안으로 도입함으로써 사람의 생활을 더 감각적이고 심리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건축이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걸러서 사람에게 이로운 것들만을 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From Doorstep to Living Room』(1926)이 쓰이기 1년 전 1925년에 알토가 자신의 동생 Vaino Aalto를 위해 설계한 주택에서, 이런 공간에 대한 그의 의지

4) Jari Jetsonen, Sirkkaliisa Jetsonen, *Alvar Aalto House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p.13
5)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주택의 1층 평면의 중앙에는 바깥에서 이어지는 작은 홀이 있는데, 홀의 천장을 뚫어 2층 공간과 연결되는 아트리움을 만들었다. 비록 홀과 연결된 2층이 천장으로 덮여있는 실내 공간이긴 하지만 천장과 벽면에서의 자연 채광을 통해 홀이 자연 속에 있는 공간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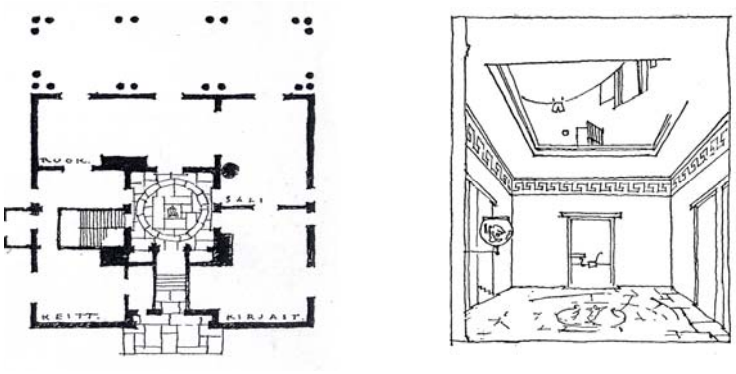


그림 2-3 Vaino House의 평면과 홀의 스케치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중정은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혹독한 겨울을 가진 핀란드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알토는 건물로 둘러싸이는 외부공간을 만들어서 자연과 건물 내부 공간의 관계를 풍부하게 생성해냈다. 세이나찰로 타운홀은 건물 내부의 복도가 중정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계되어서 사람들이 복도에서 이동하거나 혹은 복도 창가에 앉아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무라찰로 여름별장의 중정은 건물과 자연의 중간 지대 역할을 하면서, 건물 내부에서 중정을 통하여 자연을 대하게 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그림 2-4 세이나찰로 타운홀의 내부와 외부

그림 2-5 무라찰로 여름별장 내부와 외부

2.1.2. 사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물

건축이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 현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의 생각은 비단 외부 자연과 내부 공간의 경계로 작용하는 전이공간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사물'들 또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감각과 심리 등의 작용을 발생시키거나 행동을 암시함으로써 신체와 관계를 맺는다. 특히 내부 공간에서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이루는 물질보다는 작은 사물들이 신체와 가까이에서 감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비퓨리 도서관의 빛 환경 스터디를 위한 스케치에는 열람실에서 난간과 결합된 독서대와 책상에서 독서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장 앞에서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빛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난다. 스케치에는 빛의 경로를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고, "no shadow"가 여기저기에 쓰여 있다. 책을 읽거나 찾는 사람에게 적당한 밝기의 빛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림자가 생기면 행동을 방해한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 것이다.

스케치의 왼쪽은 원형 천창을 통해 자연광으로 공간을 밝히는 경우를, 오른쪽은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인공조명을 사용해 공간을 밝히는 경우를 표현하였다. 그림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열람실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벽이 반사하여 빛이 산란되는 효과를 내고자 하였고, 열람실의 벽을 하얗게 마감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했다. 자연광 채광은 기본적으로 빛이 산란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반면, 인공조명은 빛의 직진성이 강하여 강한 그림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알토는 강한 인공조명을 벽을 향해 빛을 발하게 하여 열람실 공간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열람실에는 여러 방향에서 빛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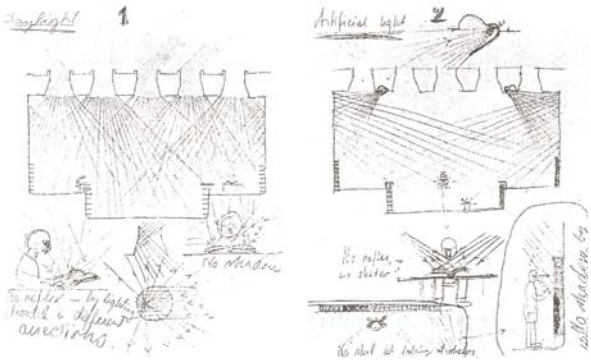


그림 2-6 비퓨리 도서관 빛 환경 스케치

그림 2-7 비퓨리 도서관 열람실

한편 알토는 시각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던 대부분의 근대 건축과 달리 다양한 신체의 감각을 다루는 건축을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건물을 설계할 때 대부분의 문과 문손잡이를 개별적으로 디자인했다. 그는 사람이 건물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접촉하는 요소로서 문손잡이를 중요하게 여겼다. 유하니 팔라스마는 '문고리를 잡는 것은 건물과 악수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6] 실제로 신체가 건축물과 직접 맞닿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닥에 발을 딛거나 바닥에 앉거나 벽을 만지거나 벽에 기대어 서는 등의 행동 외에 가구나 문손잡이와 일어나는 사람의 신체와 건축의 접촉은 그래서 특별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알토 가구와 손잡이 등의 신체가 직접 닿는 사물들의 디자인에 크게 신경을 썼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경험은 행동과 여러 감각의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된다. 특히 건축 공간의 경험은 건물을 이루는 여러 물질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인간의 감각 반응이 모여 이루어진다. 알바 알토는 이 점에 집중했다.

"진정한 의미의 기능적인 건축이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기능적이어야 한다. (중략) 건축은 수천 가지 인간의 기능(human functions)을 종합하는 위대한 통합적 과정(great synthetic process)이다. 그 목적은 물질세계를(the material world) 인간의 삶과의 조화 속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7]

그는 건축을 인간의 다양한 기능들을 다루는 통합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인간의 기능(human functions)'은 감각과 행동, 심리 등 신체의 다양한 속성들을 의미하며, '통합적 과정'은 건축이 그것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건축의 소명에 대한 표현이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건축이야말로 건물을 이루는 물질을 인간의 생활에 가장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알토는 건물을 이루면서 '인간의 기능'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물질과 그것이 만드는 현상들의 집합으로 건축을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파이미오 요양원의 병실 설계에서 이런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병실은 환자

---

6) Juhani Pallasmaa, 김훈 역, 『건축과 감각』, Spacetime, 2012, p.84
7) Alvar Aalto(1940), "The Humanizing of Architecture" in Göran Schildt ed., op. cit., p.103

가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방이다. 그는 병실을 수평적인 사람을 위한 방(a room for horizontal man)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서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방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최대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심리적인 요인과 감각적으로 환자를 심하게 자극하는 요소가 없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조명은 누워있는 환자의 눈에 직접적으로 빛이 가지 않도록 천장에서 아래로 빛을 비추는 일반적인 조명이 아니라 천장과 벽을 밝히면서 간접조명을 하였다. 난방과 채광은 환자의 몸은 따뜻하게 하면서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난방은 일반적인 방열기 대신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을 뿜는 난방 기구를 환자의 발쪽에 설치하였다. 또한 천장의 색을 흰 색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색으로 칠해 반사되는 빛이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고, 가구의 색들도 환자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초록색 계열의 색으로 제작하였다. 한편 알토는 본인이 환자로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전에서 나는 물이 튀는 소리가 예민한 상태인 환자에게 매우 거슬리고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직접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수전을 디자인하여 제작했다.

이런 그의 설계 방식은 그가 공간의 시작을 '신체'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사람의 신체가 대상 물질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였고 여러 사물-신체의 관계성을 종합하여 공간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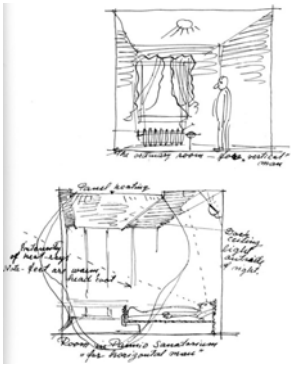


그림 2-8 병실 환경 스케치

그림 2-9 파이미오 요양원 병실

2.2. 건축의 기본 단위인 '신체-영역'

2.2.1. 활동의 집합으로 만드는 공간

알바 알토는 1930년 스톡홀름 전시에서 주택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과 함께 견본 아파트를 전시하였다.[8] 많은 건축가들이 벽으로 둘러싸이는 방들을 조합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주택을 만들었다면, 알토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기존의 방 개념으로는 한 가족이 방 한 칸 혹은 두 칸의 집에서는 생활하기 어렵지만, 똑같은 면적의 공간을 가족의 삶과 각 구성원들의 활동(activities)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충분히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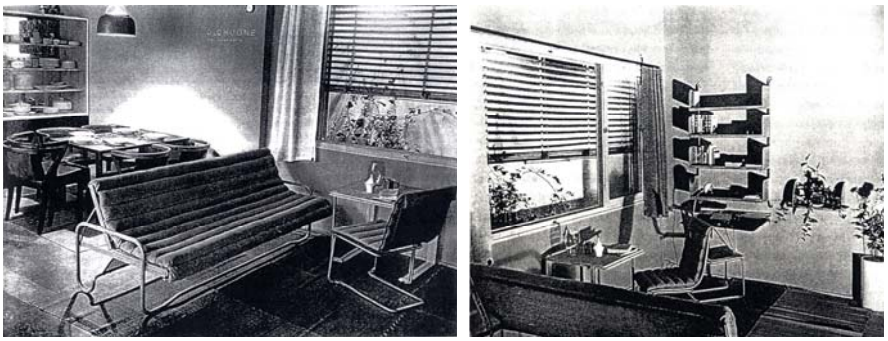


그림 2-10 1930년 스톡홀름 엑스포에 전시된 알토의 견본 아파트

당시 집합주거는 대부분 주택 내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접근은 여러 호의 주택을 획일화시켰고 위생, 환경적인 측면에만 집중한 결과 정작 사람들의 생활과는 잘 맞지 않는 집을 만들어냈다. 알토는 1930년 Domus에 "The Housing Problems"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도시에서의 최소의 주거(minimal dwelling)를 좋은 환경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그는 주택에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play) 등의 다양한 활동들에 수반되는 신체의 생체역학적인(biodynamic) 기능들에 대한 생

8) Elisabeth Tostrup(1997), "The Influence of the 1930 Stockholm Exibition o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ism and Modernism in Norwegian Post-war Architecture", NORDISK ARKITEKTURFORSKNING Vol. 10. No. 4,(1997.4), p.63
9) Alvar Aalto(1930), "The Housing Problem" in Göran Schildt ed., op. cit., p.77

각이 바탕이 되어 집합주택 설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알토는 집은 사람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그는 건축 공간을 여러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 혹은 그러한 작은 영역들의 합이라고 주장했다.

알바 알토와 동시대의 건축가인 루이스 칸에게 건축의 최소 단위는 '방(Room)'이다. 칸은 1970년에 그린 'The Room'이라는 스케치와 메모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방'에 대한 사고를 표현했다.[11] 스케치에는 어떤 공간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방은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벽난로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옆에는 외부로 열려 있는 창이 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르게 방을 이루는 요소들에 반응하면서 존재한다. 한 사람은 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밖을 향하여 앉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을 받으면서 안쪽을 향해 앉아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있다. 알토와 마찬가지로 칸 역시 건물을 이루는 사물들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였다. 또한 메모에는 '작은 방에서는 큰 방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칸은 방의 성격에 따라 사람의 행위가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1 루이스칸의 room 스케치

'방'은 일정 크기의 공간을 내포하고 독자적인 구조와 빛을 가진다. 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의 고유한 성격을 단독성(singularity)이라고 부른다. 그의 관점에서 근대 건축의 자유평면의 공간 구성 방식은 단독성을 가지는 '방'을 만들지 못하고 정체성 없는 공간만을 생성하는 것이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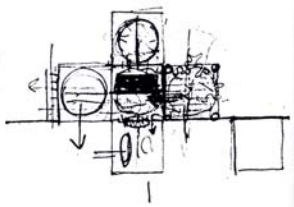


그림 2-12 아들러주택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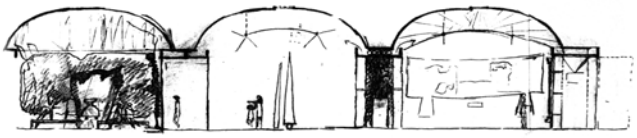


그림 2-13 킴벨 미술관 스케치

10) Ibid.
11) Louis Kahn(1971),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in Robert Twombly ed., Louis Kahn: Essential Texts, W.W.Norton & Company, 2003, p.253

하지만 칸은 알토와 달리 '방'의 명확한 구조가 먼저 있는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이 존재한다. 위 스케치의 메모에서 칸은 '건축은 하나의 방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평면은 방들의 사회이다. 그는 "방의 크기, 구조, 빛은 방의 성격과 정신적인 아우라를 만든다. 방의 구조는 방 그 안에서 명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13] 즉 명확한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존재하며, 방의 여러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에 비해 알토의 건축 공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갖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의 건축은 사람의 신체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알토는 건축 공간을 여러 활동의 합으로 이해한다. 신체의 움직임과 사람의 행동은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사람의 감각과 심리적인 지각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형태부터 정해지는 건축으로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알토의 건축은 신체 주변의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2.2.2. 유기적 활동 단위(Organic Working Unit)

알바 알토는 방에서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방과 사람은 함께 유기적인 활동 단위(organic working unit)를 형성한다고 말한다.[14]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원양 정기선의 증기 터빈을 관제하는 방에서 한 사람이 근무 중인 상황을 예로 든다.

원양선 터빈의 작동을 책임지는 한 엔지니어가 관제실 책상 앞에 앉아있다. 벽면에는 배의 연료량, 증기압력, 엔진 회전수, 다양한 온도계 등을 표시하는 계기판들이 부착되어 있다. 그 방과 그 사람은 함께 '전형적인 유기적 활동 단위'를 형성한다. 이 엔지니어는 분명히 그의 침대의 디자인이나 벽의 장식을 위해 가장 멋진 재료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그는 방의 비공식적인 편안함, 그의 휴식 자세, 그리고 때로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큰 가치를 둘 것이다.[15]

글에서 묘사하는 방은 온갖 사물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의자, 책상, 바닥, 벽, 벽지, 여러 개의 계기판들, 그리고 조명 등등의 사물들이 엔지니어의 주변을 둘

12) 안웅희, <루이스 칸의 건축존재론>, 박사학위논문, 2002, p.256
13)
14) Alvar Aalto(1930), "The Housing Problem" in Göran Schildt ed., op. cit., p.79
15) Ibid.

러싸고 있다. 그는 한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이때 이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행동, 시선의 이동, 신체의 접촉 등 그가 인지하고 느끼는 대상들만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한편 그와 관계가 형성되는 사물들은 그가 하는 활동에 적당한 자세, 필요한 빛의 밝기, 기온 등을 잘 만들어주면 이 사물들은 엔지니어에게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방과 엔지니어는 '활동 단위'를 만든다.

그림 2-14 원양선 관제실

그림 2-15 Heilig-Geist Church 스케치

여기서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은 기능주의의 관점에서의 공간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기능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엔지니어는 계기판과 조작 장치 몇 개만 상대할 뿐이다. 하지만 이 공간을 제대로,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 그가 인지하는 사물, 현상들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즉 엔지니어는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물들과 감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런 사물과 신체의 관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환경을 설명해야, 궁극적으로 엔지니어 주변의 '영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영역은 '가능하면 쉬면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대한 가능성도 담고 있는 공간이다.

알토가 1960년 교회 설계를 위해 그린 스케치[그림2-15]에는 그가 생각하는 사람과 건축 공간과, 공간을 이루는 여러 사물들의 관계가 잘 나타난다. 스케치에서 사람들이 가장 뚜렷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 의자, 조명기구, 문, 창문 등의 신체 주변의 사물들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는 건물을 이루는 사물들이 전체 건물을 이루기 이전에, 신체 주변의 환경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모여 전체 건물을 완성하려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2.2.3. 숲의 공간을 만드는 '신체-영역'

알바 알토는 1955년 비엔나 건축가협회 강연에서 핀란드의 안개 낀 호수 풍경을 첫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핀란드는 8만개가 넘는 호수와 함께 숲과 물로 이루어집니다. 핀란드에서는 자연과 조화로이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강의를 시작했다.[16] 그의 건축이 핀란드 자연환경의 형태와 분위기에 터를 두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그는 건축이 자연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였다. 많은 도시들에 더 이상 순수한 자연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연을 잘 고려한 건축물은 도시 자연의 상태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도시가 인공물과 자연환경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건물을 지을 때 건물과 자연의 조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파리 엑스포 핀란드 기념관 계획안(1937)은 알토가 핀란드의 풍경을 그의 건축에 반영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그림2-16] 입구로부터 내려가는 경사면을 따라 건물들을 연속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연속된 테라스를 갖는 건물 배치가 보인다. 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들이 등고선에 잘 어울리며 배치되었고, 땅뿐만 아니라 건물의 지붕이기도 한 테라스에도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건물의 자취를 지워내고 결국 지형 같은 건물을 완성한다.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뿐만 아니라, 대지의 북쪽에는 목재로 만들어진 높은 깃대들이 규칙 없이 꽂혀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건물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숲 속에서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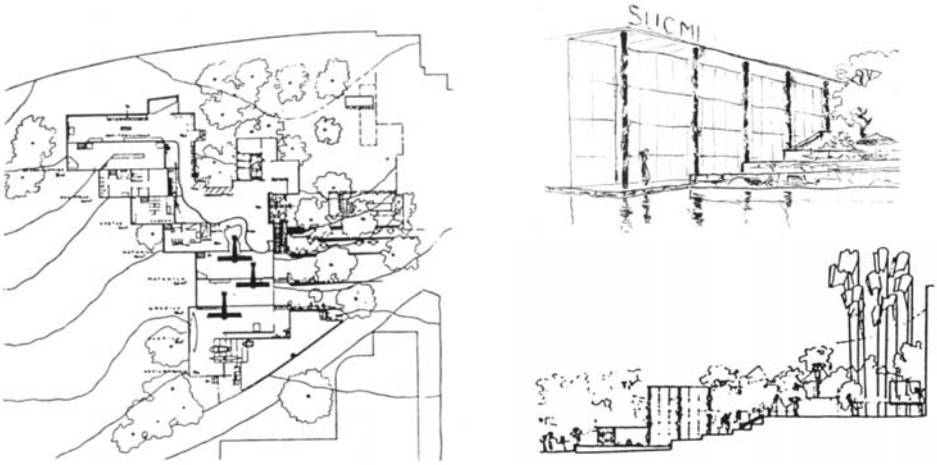


그림 2-16 파리 엑스포 핀란드기념관 계획안 도면과 투시도

16) Richard Weston ed., *Alvar Aalto*, PHAIDON, 1995, p.124

한편 대지의 남쪽 끝에는 삼각형의 물 공간이 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배치도에 선착장과 카약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큰 호수의 부분인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물 공간과 마주하는 2층 높이 건물의 입면을 유리로 만들고 그 바깥으로 얇은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콜로네이드를 둠으로써 숲과 호수의 풍경을 기둥열을 통해 내부 공간에 담아내려고 하였다. 이 계획안에서 알토가 숲과 호수로 이루어지는 핀란드 풍경을 추상화하고, 형태적인 은유를 통해서 공간을 구성하며 이것을 내부 공간으로까지 끌어들이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토의 건축을 '숲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설명한 것은 Göran Schildt이다. 그는 마이레아 주택의 진입 공간과 거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 건물을 숲을 닮은 건축이라고 말한다. 또 이 주택을 기점으로 알토의 건축에서 '숲의 공간'이라는 주제는 그의 핵심적인 건축 원리가 된다고 말한다.[17] 특히 숲을 닮으려고 한 거실이 바깥의 정원과 정원 너머 숲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알토 건축의 특징을 발견했다.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 공간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숲의 공간'의 체험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Richard Weston은 숲 속을 걷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경험에 빗대어 알토의 '숲의 공간'을 설명하였다.[18] 숲 속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움직이는 동안 자기가 숲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고,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자기 주변에 만드는 '공간'은 형성되고 변하여 다시 형성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자기 주변 사물들이 움직이면서 변하고, 결국 '공간'이 계속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림 2-17 핀란드의 숲

그림 2-18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

17) Göran Schildt, *Alvar Aalto: The Decisive Years*, New York: Rizzoli, 1986, p.160
18) Richard Weston, *Villa Mairea, Architecture in Detail*, PHAIDON, 1992,

‘신체-영역’은 건축을 구성하는 가구, 재료, 빛 등의 작은 요소들이 신체 주변에서 신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영역으로, 사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감각적 환경이다. 알토의 건축에서 사람이 활동하고 이동하는 동안, 건물을 이루는 여러 사물 중에서 신체와 관계 맺는 사물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때그때 새로운 신체-영역이 형성된다. 신체-영역은 ‘숲의 공간’이 실제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신체-영역은 앞서 살펴본 ‘활동 영역’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간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이다. 신체-영역을 만드는 요소들은 사람에게 행동을 암시하거나 특정 감각적 반응을 일으킨다.

알토는 공간 안에서 한 행동을 하다가 다른 행동으로 옮겨갈 때, 즉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 어려움이나 방해 없이 '유기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19] 이런 점에서 신체-영역을 기본 단위로 하여 만들어지는 알바 알토의 건축은 사람의 움직임과 행동을 비롯해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신체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 맺는 공간을 갖는다.

19) Alvar Aalto(1930), "The Housing Problem" in Göran Schildt ed., op. cit., p. 78

2.3. 개별성과 집합성의 개념

알바 알토는 1955년 비엔나 건축가 협회에서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20] 그는 학교라는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다가 다음과 같은 말로, 개별성과 집합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했다.

"우리는 오로지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에서는 진정한 개인주의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집합주의가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완전한 개인주의와 과도한 집합주의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21]

이 강연에서 그는 기능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교육 제도와 학교 건물의 문제점에 대해 역설하였다. 위의 언술에서 집합성(collectivity)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근대적인 교육이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집합화하여(collectivize) 학생들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올바른 제도에 대한 그의 생각은 건축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는 건축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적당히 조율하면서 그 사이 적당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앤드류 스콧은 알바 알토의 유바스큘라(Jyväskylä) 대학을 언급하며, 건물과 교실의 디자인이 학생들의 성공적인 배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22] 그는 이 교육 시설에서 모든 학생들이 존중되며, 학생 개개인이 서로 차이를 갖는다는 믿음이 그런 바람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지나치게 집합화된 이상적인 공동체 개념보다, '개인'이 갖는 개별성이 장점으로 작용하여 제도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다.

알토는 유바스큘라 대학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여러 동의 건물들로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는 학생들의 개성 있는 생활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을 분산시켜 만들려는 의도였다.

---

20) Alvar Aalto(1955),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 in Göran Schildt ed., *Alvar Aalto in His Own Words*, New York: Rizzoli, 1997, p. 176
21) Ibid., p. 178
22) Andrew Scott, *Northern Lights: The Positive Public Policy Example of Sweden, Finland, Denmark and Norway*, Monash Univ. Publishing, 2014, p.101

그림 2-19 유바스큘라 대학의 배치도와 강의동의 홀

당시 시대적으로 건축이 집합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토가 개별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은 근대건축이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던 개인들, 즉 존중받지 못하던 개별적인 존재들의 가치를 다시 복원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3.1. 작은 사람(the little man)을 위한 건축

개별성(individuality)을 존중하는 건축은 모든 사람이 고유하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건물에서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자기만의 경험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는 알바 알토가 건축의 잠재적 사용자들 혹은 거주자들 개개인을 작은 사람(the little man)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위한 건축을 해야 함을 주장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23]

'작은 사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여러 글이나 강연에서 사용한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작은 사람'은 도시공간에서 소외되고, 관심 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두루 의미하는 말이다. 그는 당시 핀란드의 정치적인 요인, 도시 제도, 공업화 등에 의한 여러 시대적, 사회적 영향들로부터 '작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을 추구했다.[24]

---

23) John Roberts(2015), "Landscape and the Little Man: Aalto, the Institution and the Individual", SAHANZ 2015 Conference Proceedings, SAHANZ, 2015, p. 513
24) Ibid.

우리가(건축가들이) 해야 하는 작업은 단순하면서 질 좋고, 꾸미지 않은 사물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길거리에 있는 작은 사람들에게도 유기적으로 알맞은 사물을 위한 작업이어야 한다.[25]

알토는 사람을 소위 '근대인'으로 여기지 않고, 생리학적이고 인지하며 생각하는 개별적인 생명체로 보았다. 즉 건물의 사용자, 나아가 꼭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까지도, 감각적이고 반응하는(responsive) 개인들로 여기며 건물을 설계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작은 문고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사물들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감각과 신체 치수 등을 고려하면서 형태, 크기, 재질 등의 속성을 섬세하게 디자인하여 제작했다.

그림 2-20 헬싱키 아카데미아 서점의 문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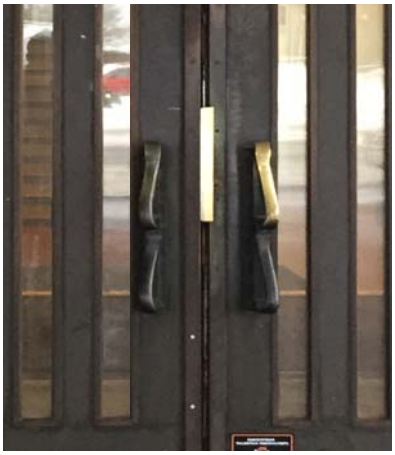


그림 2-21 세이나요키 타운홀의 문손잡이

헬싱키의 아카데미아 서점의 문에는 손으로 잡기에 좋은 유연한 곡선으로 디자인된 손잡이가 세 개나 붙어있다. 알토는 1950년에 처음 디자인하여 제작한 이 손잡이를 세이나요키 타운홀, 극장, 유바스큘라 대학 등의 공공건물에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를 붙였다. 이는 단순히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이 각자 키에 맞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기보다는, 알토가 그만큼 '작은 사람들'의

25) Alvar Aalto(1950), "The Enemies of Good Architecture", in Göran Schildt ed., op. cit., p. 206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hould work for simple, good, undecorated things, but thing which are in harmony with the human being and organically suited to the little man in the street" "the enemies of good architecture"

신체 치수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여러 선택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의 개별성을 존중해주는 디자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2. 유연한 표준화(flexible standardization)

알토는 1941년 취리히 공과대학 강연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된 마을의 모습을 담은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강연을 시작했다.[26] 첫 번째 사진은 폐허가 된 집에서 남겨진 화로를 이용해 한 여성이 빵을 굽고 있다. 두 번째 사진은 사람들이 폐허에 남아있는 나무, 얇은 천, 판자 조각 등을 가지고 작은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건축이 본래 사람 개개인의 창의적인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27] 하지만 아쉽게도 개인의 '창의적인' 건축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초-표준화(super-standardized)"되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창의적으로 재료들을 조화롭게 조립해서 만들던 건축은 공장의 임금 노동 작업으로 대체되었다.

그림 2-22 폐허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건축 본능

26) Alvar Aalto(1941), "The Reconstruction of Europe Is the Key Problem for the Architecture of Our Time", in Ibid., p. 151
27) Ibid.

당시 사회는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품을 표준화하고 획일화하는 경향이 산업 전반에서 보였고, 이는 가구나 건축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알토는 이렇게 건축이 지나치게 표준화되어버리면 개인의 진정한 심리적인 욕구(needs)나 내적 균형(inner balance)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힘들을 깨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28]

알바 알토는 건축 재료, 가구 등 여러 제품의 생산 방식에 주목하였는데 건축 전반의 산업에서 제품들이 '올바르게'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해진 타입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것 대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것의 부품들을 표준화하고 다양화하여 생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표준화를 "유연한 표준화"라고 부른다.[29] 알토는 이것을 식물의 한 세포가 다양한 기관으로 분화하는 자연의 방식, 그리고 동일한 기관임에도 환경에 맞춰 그 크기를 달리하는 속성 등에 비유하면서, 유연한 표준화는 건축이 자연의 법칙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알토는 "유연한 표준화"를 통하여 다양한 가구를 제작함으로써, 가구의 개별성과 집합성을 이루었다. 그가 디자인한 의자들은 일부 부품을 공유하면서 특정 부품을 변화하여 조합함으로써 다양성을 갖는다. 그는 이런 생산과 제작 방식을 통해 가구와, 거기서 더 나아가 건축이 사람과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림 2-23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다양한 가구

28) Ibid., p. 150
29) Ibid., p. 149

Stool의 경우 다리를 세 개를 붙이기도 하고 네 개를 붙이기도 한다. 또한 의자의 상판의 색이나 재료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Stool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소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재를 휘어서 만드는 두 다리를 공유하면서, 같은 형태의 앉는 부분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거여 만들거나, 앉는 부분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다리와 결합시키기도 한다.

알토는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 가구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으며, 건축 설계의 과정에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컸다. 그의 가구에 대한 많은 언술과 스케치들이 이를 증명해준다. “The Humanizing of Architecture"라는 글에서 그는 좋은 가구의 조건을 서술했다. 당시 막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던 크롬 도금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가구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생산을 위한 좋은 해결법이지만, 인간에게는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재료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파이미오 요양원과 비퓨리 도서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재 가구들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요양원과 도서관에서 목재 가구는 가볍기 때문에 옮기거나 필요에 따라 쌓아서 보관하기에 편하고, 따라서 주어진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목재는 빛을 강하게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람의 촉감에도 좋다. 또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조건에서, 흔한 재료로서 공공건물에서 사용될 가구의 재료로 적당했다.

2.3.3. 소결

개별성과 집합성은 알토의 건축을 꿰뚫는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근대 사회에서 소외받던 ‘개인’들의 고유함, 개별성에 대한 존중은 그의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인’을 건축의 대상으로 하며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미명 아래 건축이 기능주의로 범벅되던 시대에, 그는 사람의 본질을 다양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 개개인이 다르고 사람 집단들끼리도 다르기 때문에 건축의 기능과 형태는 그 차이의 범위에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건축은 그것의 목적에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30]

개별성과 집합성에 대한 그의 사상은 그의 건축에서 작게는 재료의 사용, 가구

30) Ibid., p. 153

의 디자인과 제작에서부터 크게는 각 공간들의 집합, 개실들(units)의 집합까지, 여러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그가 건축에서 개별적인 것들의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합성을 만드는 방법은 '요소의 공유와 변주'라고 할 수 있다.

3. 건축 요소의 개별성과 집합성

3.1. 움직이는 신체를 포함하는 영역을 갖는 건축 요소
3.1.1. 문과 문손잡이: 수평적 영역
3.1.2. 계단: 수직적 영역
3.2. 신체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 영역을 갖는 건축 요소
3.2.1. 창문: 건물 내부와 외부
3.2.2. 기둥: 주위 영역
3.3. 신체와 밀접하게 맞닿는 건축 요소
3.3.1. 가구
3.4. 소결

알바 알토는 사람을 자신의 건축적 사고의 중심에 두고 신체의 행동, 감각, 심리적 작용 등의 인간의 기능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그에게 건축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은 인간의 대상물이다. 알토의 건축에서는 작은 건축 요소들도 사람의 감각, 심리, 행동의 대상으로서 고려되어 모두 개별적으로 디자인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물들은 그것이 놓이는 공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알토의 건축은 개별적인 건축 요소들의 집합으로서 완성된다. 이 장에서는 문, 손잡이, 계단, 창문, 기둥, 가구 등의 건축 요소, 즉 사물들과 그것이 갖는 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모든 사물은 주변에 고유한 영역을 가지며, 사람이 사물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영역은 구체화된다. 이 장에서는 건축 요소들이 갖는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건축 요소들의 개별성을 분석하고 개별 건축 요소들이 모여서 전체 건물을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움직이는 신체를 포함하는 영역을 갖는 건축 요소

3.1.1. 문과 문손잡이: 수평적 영역

문은 한 공간에서 반대편 공간으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건축 요소로, 문 주변에서는 문을 열고 닫는 행위에 대한 암시가 항상 존재한다. 알도 반 아이크는 문을 '맞이하는 장소'라고 생각했다.[31] 그는 문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에 놓이는 것이 문이고, 문에는 문을 열고 지나가고 다시 닫는 등의 여러 행동을 위한 영역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는 문지방(doorstep)이 건물에 속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도시공간에 속하기도 하는 중간지대라고 생각하고, 양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동시에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알바 알토는 아이크와 마찬가지로 문 근처에 사람과 함께 형성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문과 문손잡이의 감각적인 측면을 중요시했다. 문손잡이는 신체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사물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즉 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소이다. 알토가 설계한 건물들의 문 하나하나의 손잡이를 사람의 촉감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진정으로 문을 건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레아 주택의 경우,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24개의 문들이 전부 똑같지 않고 다르게, 개별적으로 디자인 되어있다.[32] 이는 알토가 건축 작업 전반에서 건축 요소로서 문과 문손잡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가치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에게 문과 문손잡이의 디자인은 건축 설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알토의 건축에서 문과 문손잡이의 디자인은 문이 위치하는 주변 영역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문의 전후 영역의 관계를 규정한다. 한편 알토의 문에 대한 일종의 집착이 주택에서 정점을 찍는다면,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는 그것이 조금 완화된다. 즉, 개인의 생활이 일어나는 주택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위한 여러 개별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공공건물에서는 동일

---

31) Vincent Ligtelijn ed., Aldo Van Eyck Writings, Birkhäuser Publishers, 1999, pp. 291-292

32) 마이레아 주택은 알토에 의해 작성된 평면을 기준으로 주택 전체에 크고 작은 문 48개가 있으며, 그중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은 24개이고, 이 문들은 모두 디자인이 다르다.

한 디자인의 문이 반복되어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사실은 건축의 부분 요소인 문들이 건물 전체를 구성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 마이레아 주택 1937-1939

현관문

마이레아 주택의 출입구는 자유곡선형의 캐노피로 덮여있다. 캐노피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흰색으로 칠해진 콘크리트 기둥과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진 여러 나무 기둥 다발들이 있다. 콘크리트 기둥은 어린(가는) 나무들로 둘러싸 콘크리트의 모습을 감추고 있고, 이 나무 열은 캐노피 동쪽 테두리를 따라 계속 이어진다. 이 나무들을 따라 식물들이 자라고 이는 주변의 기울어진 나무 기둥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한다. 캐노피 밑면은 가늘고 긴 목재를 연달아 붙여 선적인 요소가 강조되는데, 이 목재들에 빛이 반사되는 모습은 숲의 나무들 사이로 갈라지는 빛처럼 느껴진다. 이런 진입 공간은 주택 주변의 무성한 소나무 숲과 마주하여 조화를 이룬다.

현관문은 주변의 여러 선적인 요소와 자연의 모습을 닮으려 하였다. 붉은색의 목재를 이어 붙여 수직의 결을 가진 문을 만들었다. 눈높이 주위에는 유리를 끼운 열두 개의 원통 황동 철물들이 문을 관통하고 있다.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문을 열기 전에 이 개구부를 통해 바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 방문자는 아마도 이 개구부 주변에 서성이면서 집주인이 본인을 알아채기를 바라면서 기다릴 것이다. 문 밖의 공간은 넓은 캐노피로 덮여있고 바닥에 깔린 돌과 나무를 연상시키는 요소들과 주변 식물들이 모여 문 밖 공간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그림 3-1 현관문을 등지고 바라본 모습

그림 3-2 현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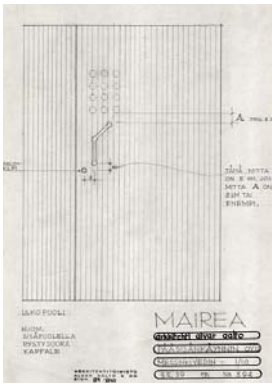


그림 3-3 현관문 입면도

한편 문의 손잡이는 핀란드 전통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던 나무 손잡이의 형태

를 형상화하여 황동으로 만든 것이다. 핀란드 전통 주택에서 주로 손잡이로 적당한 두께를 가지는 나뭇가지의 꺾인 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문손잡이로 사용하곤 했는데, 현관문의 황동 문손잡이는 핀란드의 전통적인 문손잡이를 닮으면서도 손으로 잡기 좋은 형태로 매끄러운 곡선으로 디자인되었다. 여기서 알토가 가지고 있던 당시 발달된 생산 기술의 '인간적인' 사용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기술을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것 대신에 사물을 사용자화 하고 전통적인 것을 당시 기준으로 현대적인 것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했다.

그림 3-4 현관문의 손잡이와 개구부

그림 3-5 핀란드 전통 주택의 나무 문손잡이

알토의 현관문 디자인과 그 앞의 진입공간이 가지는 따뜻함은 거의 동시대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주택의 문과 문손잡이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가 설계한 대표적인 주택인 라로슈 주택과 사보아 주택 현관문은 정말 '열고 드나드는 문'이라는 문의 기능적인 요구만 해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라로슈 주택의 현관문은 아무리 문이 안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라고 할지라도,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무미건조한 환경을 만든다.

그림 3-6 사보아 주택의 현관문

그림 3-7 라로슈 주택의 현관문

온실문과 계단문

큰 거실에 접해있는 온실과 2층 스튜디오로 향하는 계단은 각각 미닫이문과 여닫이문을 갖고 있다. 두 문은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디자인되었을 것이다. 계단의 폭이 정해지면서 계단 문의 폭도 함께 정해지고 나머지 폭으로 온실의 문의 크기가 정해졌다. 두 문 모두 천장 쪽은 분리되어서 문과 같은 방식으로 마감된 고정된 면을 만들었다.

계단 앞의 여닫이문은 나무널판을 수평방향으로 붙인 블라인드 같은 문이다. 시각적으로는 완전한 면으로 읽혀서 옆의 흰 벽과 어우러져 단단하고 육중한 구조체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뚫려있어서 공기가 통하고 계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문을 통해 큰 거실로 새어나온다. 이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문 앞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3-8 온실과 계단 앞의 문들

온실은 춥고 긴 핀란드의 겨울을 이겨내고 일 년 내내 식물을 키우기 위한 공간이다. 거실과 온실 사이에 있는 문은 온실에 빛을 들이기 위해 유리로 만들었고, 온실 내부에 덩굴식물이 자라도록 설치해 놓은 가는 나무틀을 문과 그 위에 창에도 붙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은 온실 안에 있는 식물들을 푸른 모습을 긴 겨울 동안 큰 거실에서도 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공간이 작고, 사람이 거실에서 온실로, 온실에서 거실로 이동할 때 신체가 인지하는 영역이 더 빠르게 전환된다. 이는 추운 핀란드의 기후에서 온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별함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준다.

온실은 햇빛을 최대한 안으로 들이기 위해 외기를 면하는 두 면을 유리로 마감했는데, 중정을 바라보는 북서쪽 면은 창으로, 2층 매스가 튀어나와 캐노피 역할을 해주는 테라스에 면한 남서쪽은 창과 문으로 나누어 만들었다. 온실에는 벽돌로 만든 선반이 하나 있는데, 바깥으로부터 이를 가리기 위해 바닥부터 선반의 높이만큼 나무를 대고 그 위를 유리창으로 만들었다. 유리창 좌우에 두 개의 문은 유리창의 디자인에 맞춰 아랫부분은 나무로 윗부분은 유리로 만들었고, 두 문은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문-창-문으로 구성된 면을 두 겹으로 하여 온실의 단열 효과를 높였다. 두 겹의 문은 각각 안쪽과 바깥쪽으로 열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은 다시 온실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투명한 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깥 숲의 모습이 온실의 여러 식물들과 얇은 목재들을 이용해 가벼운 구조로 만들어진 가구들과 어우러져,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문 밖에 있는 테라스 공간과의 관계도 생겨난다.

그림 3-9 온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림 3-10 온실 밖 테라스

한편 르 코르뷔지에가 디자인한 실내의 문들은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에게 문은 하나의 조형 요소로서, 벽의 일부에 구멍을 내고 벽과 다른 하나의 면으로 그 구멍을 채우는 것으로 여긴 것 같다. 그는 *"Precisions"*에서 라 플라타에서 산책하다가 문에 대해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문의 건축적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문은 벽을 둘로 나눈다는 것이다.'[33]

그림 3-11 이무블 빌라

이 말은 벽에 문이 설치됨으로써 두 공간을 나누고 있던 벽의 양쪽 면을 모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문이 기본적으로 두 면을 가져서 각각의 면이 다른 공간에 면하게 된다는 점도 암시한다. 대표적으로 파리 이무블 빌라 펜트하우스의 홀과 거실 사이 문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3-11]을 보면 홀을 마주하는 면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거실을 마주하는 면은 크림색으로 칠하여 각 공간에서 다르게 인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르 코르뷔지에의 이러한 문에 대한 생각은 라로슈 주택과 사보아 주택에서도 나타난다. 문이 두 면을 갖는 조형 요소라는 것은 코르뷔지에에게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다. 그는 두 주택에서 양쪽의 마감을 다르게 함으로써 문이 열렸을 때 공간의 완전함이 어긋났다가 문이 다시 닫히면 그 방의 완결성이 다시 회복되는 문의 디자인을 하였다.

그림 3-12 라로슈 주택 내부

그림 3-13 사보아 주택 내부

33) Le Corbusier, 정진국·이관석 역, 『프레시지옹』, 동녘, 2004, p. 228

사우나 문

주택과 분리되어 별도로 지어진 사우나는 모던한 디자인의 주택 건물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다. 사우나는 전통적인 건축 재료인 목재로 지어졌지만, 외장 마감 방식은 독특하다. 건물 높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목재를 아래쪽은 수직으로, 위쪽은 수평으로 하여 반복하였다. 사우나의 문은 이런 입면에 어울리게 위와 아래 두 부분으로 나뉘어 만들어졌다. 문의 재료는 벽의 외장과 마찬가지로 목재가 사용되었는데, 아랫부분은 자작나무 띠를 직조하여 만들었으며 윗부분은 가는 목재를 수직으로 하여 반복해서 만들었다. 위쪽 문에서 느껴지는 수직성과 아래쪽 문의 직조된 면은 각각 벽의 윗부분의 수평성과 아랫부분의 수직성과 대비되어, 결과적으로 벽과 문의 구분을 일으킨다. 사우나의 문은 재료나 색감, 질감의 측면에서 주변의 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대비되게 디자인되었다.

손잡이는 두 개의 문 중 위쪽 문에만 붙어 있어서 두 문은 핀란드의 전통 방식을 따라 선택적으로 동시에 열 수도 있고 따로 열 수도 있다. 손잡이는 위쪽 문의 가장 낮은 곳에 좌우로 길게 붙어있다. 사우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즐기는 '낮은' 자세의 공간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비교적 낮은 높이에 설치되어서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몸의 중심을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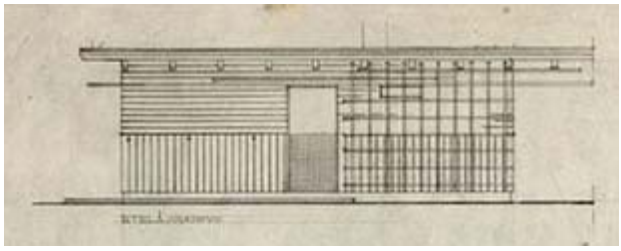


그림 3-14 사우나 건물의 입면 계획

그림 3-15 사우나 문

사우나에서부터 유선형의 수영장까지 짙은 색의 목재 바닥이 깔려있다.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따르면서도 조금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사우나의 벽면과 문의 디자인은 바닥을 비롯해 사우나 앞에 자라는 소나무와 여러 덩굴 식물들과 어울려 호숫가에 지어진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림 3-16 사우나 앞 공간과 수영장의 모습

사우나 뒤쪽 문

마이레아 주택은 대지 남쪽에 위치한 모던한 디자인의 본 건물과 북쪽에 놓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진 사우나로 구성된다. 사우나의 북쪽으로는 소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다. 사우나가 주택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다면, 사우나의 서쪽에는 토속적인 돌담과 거칠게 만들어진 나무 울타리와 문이 있다. 이 문은 주택과 사우나로 둘러싸인 정원을 지나 북쪽 숲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집에서 자연으로 진출하는 문이다.

키 큰 나무로 울창한 숲과 만나는 지점에 문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알토는 문이 건너편 자연과 조화롭게 보이며 인공물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자연 재료인 큰 돌을 쌓아 만든 돌담의 높이에 맞춰 목재를 얼기설기 엮어 울타리와 문을 만들었다. 주택에서 나타나는 근대적인 모습과 다르게 핀란드의 민속 주택을 연상시키는 이 문은 주택이 품은 정원이라는 인공 자연과 숲이라는 자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문을 지나 바깥쪽 바닥에는 자연석을 드문드문 깔았다.

그림 3-17 정원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문의 모습과 구상 스케치

(2) 세이나찰로 시청사(Säynätsalo Town Hall, 1950-1952)

현관문

세이나찰로 시청사는 주변 지면에서 한 층 높이만큼 높여져 중정을 가지고, 주 출입구도 이곳에 존재한다. 중정으로 오르는 계단은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지만, 주로 서쪽에 돌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계단을 통해 건물로 진입하게 된다. 서쪽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앞쪽에 도서관(현재는 서점)으로 진입하는 현관문이 있고, 다 올라오면 중정과 함께 오른쪽으로 주 현관문이 보인다. 주 현관문은 주민 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도 사용하는 문이다. 두 문 모두 시청사의 바깥쪽 입면을 이루는 벽돌 면이 진입부의 한쪽 벽으로 이어지고, 반대쪽에는 중정이 놓여있다. 현관문은 벽돌 벽과 중정 등의 주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중정은 복도를 따라 배열된 수직 목재 창틀이 부각되어 보인다. 어두운 색 철재로 마감된 창틀은 건물 뒤에 배경이 되는 큰 나무들과 조화를 이룬다. 어두운 색의 지붕과 벽을 타고 자라는 식물은 건물의 윤곽을 지워내면서 건물의 배경이 되는 나무들과 건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두 현관문은 모두 목재들을 수직으로 붙여서 만들었다. 목재들과 그 간격에 의해 생기는 강한 수직성은 중정에서 보이는 창틀들과 건물 뒤 큰 나무들이 만드는 수직성과 연관된다. 두 문 앞 공간을 이어주는 캐노피의 철재 구조물의 선적인 요소와도 조화를 이룬다. 또한 바깥의 벽돌 입면에서 느끼던 수평성이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서 수직성이 강한 요소들을 보게 되고 이는 문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문 앞쪽에는 약 1미터 정도 깊이의 공간이 있고 문을 열고 드나들며 닫는 행동을 하기에 충분하고, 건물에 도착했을 때 눈을 털기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림 3-18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현관문 (좌: 도서관, 우: 주민사무소와 의회)

한편 목재들 사이에 간격을 두어 방문객이 밖에서 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레아 주택의 현관문에서는 작은 개구부를 통해 건물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던 것에 비해 시청사의 현관문은 양방향의 바라봄이 동등하다. 또한 개구부도 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이어져서 방문자의 연령이나 신장에 관계없이 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시청사라는 건물이 갖는 공공건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다. 문손잡이는 문 높이의 중간보다 낮은 곳에 붙어있다. 손잡이는 수직으로 긴 검은색 금속을 나무줄기로 감아서 만들었다.

그림 3-19 세이나찰로 시청사 현관문 손잡이

사무실 문

시청사 안으로 들어서면 주민 민원실이 있고, 중정에 면한 복도를 따라 여러 상담실과 사무실들이 있다. 가장 먼저 있는 주민 민원실을 포함하여 복도를 따라 총 10개의 문이 있다. 복도는 중정을 향하는 창문, 바닥에 벽돌과 흰 석재, 흰색 천장 등의 요소가 진행 방향을 따라 연속되어 일정한 환경 조성한다. 이에 따라 복도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문은 치수들만 조금씩 달리 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건물 내부는 주로 벽돌 벽으로 구성되며 문이 있는 주변 영역만 벽이 목재와 유리로 만들어졌다. 문들은 이 목재와 유리의 구성 방식과 어우러져서 문이 닫혔을 때 주변과 동화되어 보인다. 수직성이 부각되는 문과 주변 벽은 마주보고 있는 창문의 창틀들과 기둥들이 이루는 수직성과 대응한다.

그림 3-20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내부 방들의 문 (좌: 민원실, 우: 상담실, 사무실)

문은 시청사의 현관문과 비슷하게 목재를 이용해 만들었는데, 현관문과 비교해 수직 방향으로 드문드문 엮었다. 따라서 현관문과 비교해 보면, 빛의 투과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개구부가 작아져서 문을 통해 시각적으로 문 건너편 공간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 이는 각 방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복도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은 주민 민원실만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방들은 하나씩 있다. 먼저 민원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문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고, 들어가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복도를 따라서 있는 8개의 문 중 6개는 방, 1개는 계단실, 1개는 직원 숙소로 연결되는 문이다. 그럼에도 복도에 있는 문들은 전부 동일하다. 앞서 말했듯이 각 문의 주변인 복도의 환경도 동일하다. 이는 공공건물로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방들의 성격을 나타낸다. 6개의 방들은 주민 사무소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방들이다. 각 방들은 동등하며, 경우에 따라 기능이 변경될 수도 있는 보편성을 가진다.

상가 문

그림 3-21 세이나찰로 시청사 지층 상가의 문

시청사의 지층에는 사무소와 상가로 쓰도록 설계되었고 현재는 서점, 작업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상가들의 문은 주민 사무소의 문들에 비해 매우 개방적이다. 각 방들은 큰 창과 큰 개구부를 갖는 문으로 길과 면해 있어서 안과 밖이 시각적으로 통한다. 건물이 땅과 만나는 부분은 벽돌이 아닌 콘크리트로 이루어진다. 이는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를 고려한 것으로, 문은 콘크리트 기단 높

이만큼은 목재로 되어있고 그 윗부분은 개구부의 크기를 최대로 하여 문을 만들었다. 지층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디자인된 9개의 문이 있다. 이는 주민 사무소의 복도에 같은 문이 사용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매점들도 각 방이 동등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기능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문과 문손잡이의 집합성

문은 두 공간의 경계로서 작용하는 동시에 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건축 요소이다. 문은 사람이 문손잡이를 잡고 밀거나 당겨서 문을 열고, 통과하여 다시 닫는 일련의 행동을 항상 수반한다. 따라서 문 주변에 이 행동을 하기 위한 적당한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또한 사람이 문을 열기 전에는 문 건너편 공간에 대한 기대와 궁금함이 존재한다. 또 마주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의 개구부를 통해 문 반대쪽 공간을 살펴볼 수 있어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해소할 수도 있고 사람의 통행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의 속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문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은 문이라는 건축 요소가 각각 다른 공간에 존재하지만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부분적으로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알토의 문과 문손잡이는 주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문은 건물의 입면의 한 부분을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 주변 영역에서 문은 감각적인 자극을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행동을 암시하곤 한다. 마이레아 주택의 문들을 표시하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주변 영역을 표현해보면 [그림 3-22]와 같다. 앞서 살펴 본대로 이 영역은 경우에 따라 겹쳐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따로 떨어져 다른 공간에 놓인다.

한편 알토가 설계한 주택과 공공건물에서 문과 문손잡이가 형성하는 영역들의 집합 양상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거주자가 주된 이용자인 주택은 근본적으로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공공건물은 주택과 달리 여러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용도 면에서도 집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알토가 설계한 건물 중에서 주택은 사물 하나하나가 다르게 만들어지고, 건물을 이루는 각 영역이 개별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공공건물에서는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사물이나 영역의 반복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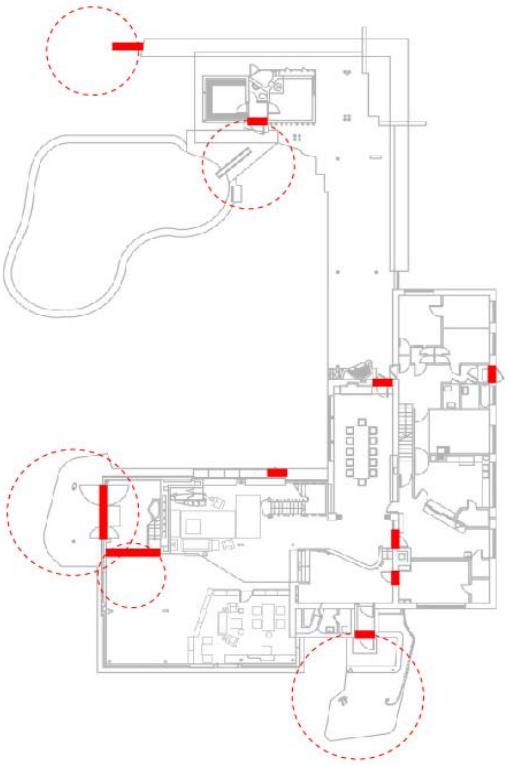


그림 3-22 마이레아 주택의 문이 만드는 영역의 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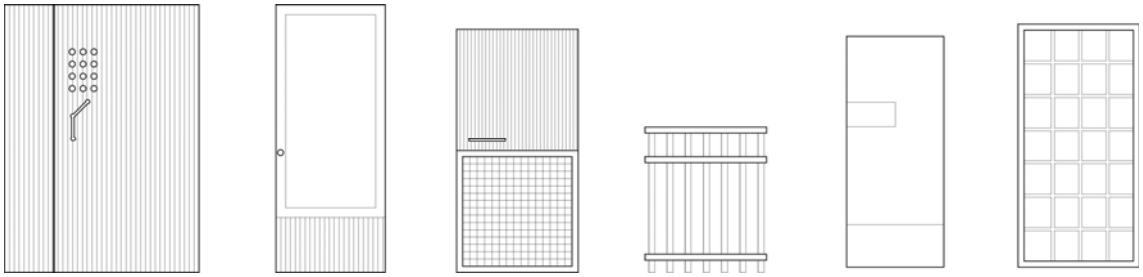


그림 3-23 마이레아 주택의 부분을 구성하는 문들

3.1.2. 계단: 수직적 영역

계단은 수직적으로 단절되어있는 각 층의 공간들을 이어주는 건축요소이다. 사람들은 계단을 디디며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사람은 발로 계단의 단들을 밟게 되고 손으로 계단손잡이(handrail)를 잡기도 하며 이동하면서 시야가 변한다. 일반적으로 계단은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공간에 놓이면서 그 공간에서 오브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계단은 그 공간의 분위기 형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실제로 앞으로 살펴볼 알토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계단은 그것이 놓이는 공간에 따라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알토는 계단을 설계함에 있어서 계단 본연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이 계단에 진입하는 영역 혹은 계단을 빠져나오는 영역에 대한 생각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이레아 주택 거실에는 거실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상당히 큰 존재감을 나타내며 위치한다. 목재로 만들어진 계단은 철재 프레임으로 지지되며 가는 수직 목재들에 의해 감싸여있다. 때문에 계단은 가벼워 보이면서 동시에 계단이 만드는 영역이 거실의 다른 영역들과 구분되어 존재감을 가진다. 이런 디자인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낙수장(Fallingwater)의 거실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디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34] 하지만 낙수장의 계단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철재가 실제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계단은 수직 목재들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장식적인 요소들이고, 인공적인 리듬을 피하기 위해 목재들의 간격을 임의적로 하여 배열하였다.

그림 3-24 마이레아 주택 주계단의 사진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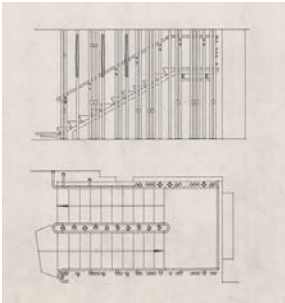


그림 3-25 낙수장 계단

34) 김현섭, <A Study on Alvar Aalto and His Experimentation in Villa Mairea>, 박사학위논문, 2005, p. 118

계단을 구성하는 목재로 만들어진 단들은 천으로 덮여있어서 사람들이 발로 디딜 때 포근한 촉감을 느끼게 하고, 계단에서 발생하는 발소리를 줄여준다.[그림 3-26] 한편 거실 바닥으로부터 계단의 첫 단은 다른 단들과 다르게 자유곡선 형태의 나무판이다. 계단의 폭보다 더 넓은 이 단은 거실의 타일바닥에서 계단의 질감으로 바뀌는 사이에서 전이영역으로서 역할 한다. 이 단의 자유로운 형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단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어 계단이 만드는 전체 영역에서 진입 영역을 이룬다.

계단손잡이는 황동과 나무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계단 진입부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 목재를 감싸는 부분을 포함하여 곡선이 필요한 부분은 황동으로 만들었고, 곧은 부분은 원형 목재가 사용되었다. 목재는 열전도율이 낮아서 손으로 잡을 때 느껴지는 온도차가 크지 않아 계단손잡이로 좋은 반면, 곡선 형태를 만들기에는 목재보다 금속이 더 편하기 때문에 곡선 부분은 황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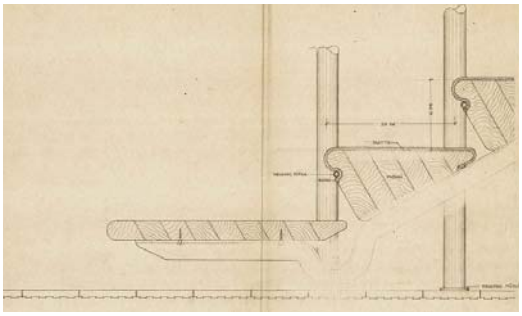


그림 3-26 마이레아 주택 주계단 상세도

그림 3-27 마이레아 주택 주계단

한편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적 산책로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건축에서 수직 동선을 잇는 건축요소를 중요시했다. 특히 그는 계단보다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경사로를 더 좋아했다. 사보아 주택의 중앙에 위치한 경사로나 라로슈 주택의 경사로는 그의 대표적인 경사로이다. 두 경사로는 모두 바닥이 매끄럽다. 페인트칠을 하거나 매트를 깔아서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든다. 손잡이는 철재로 만들어져 일관적으로 경사로를 따라서 이어진다. 사보아 주택의 경사로는 손잡이가 기둥에 의해 끊어지거나 손잡이가 없는 부분도 많다. 사보아 주택의 주계단은 검정색 타일로 마감된 단과 흰 난간, 검정색 철재로 손잡이로 만들어진다. 손잡이는 연속되지 않고 끊어지며 경사로와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없는 부분도 많다. 코르뷔지에에게 계단이나 경사로는 움직임만을 위한 건축 요소이며, 이동하

면서 바라보는 주변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처리에 집착하였다.

그의 계단은 그것이 놓이는 전체 공간에서 한 오브제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인지되고 신체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 특히 바닥은 일률적으로 페인트칠 또는 타일로 마감하여 딱딱한 바닥을 만들며 손잡이는 매우 가는 원형 철재를 즐겨 사용한다. 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코르뷔지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에게 계단이나 경사로의 손잡이는 깔끔한 면에 덧붙어야 하는 요소로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로 그가 만든 대부분의 계단이나 경사로에서는 손잡이가 이어지다가 다른 면이나 다른 건축 요소를 만나면 손잡이가 생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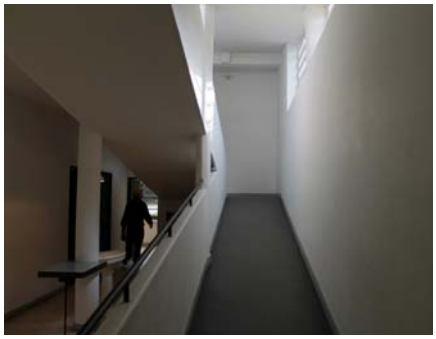


그림 3-28 르 코르뷔지에의 경사로 (좌: 라로슈 주택, 우: 사보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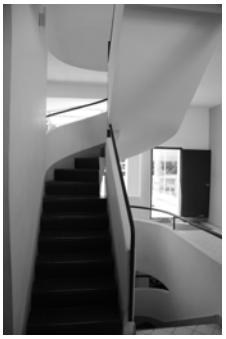


그림 3-29 사보아 주택의 나선계단

이에 비해 알토의 계단은 사람이 계단을 이용하면서 신체가 접촉하게 되는 각 단의 면(tread)과 손잡이의 재료와 형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여 만든다. 이런 점은 세이나요키 시청사의 홀에 있는 주계단에서도 나타난다. 홀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디딤판이 타일로 마감되었고, 각 단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의 끝부분에 목재를 덧대었다. 또한 손으로 잡기에 편한 형태의 목재 손잡이가 계단의 시작하는 부분부터 2층까지 좌우에 완전하게 이어진다. 세이나요키 시청사의 거의 모든 계단들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세이나찰로 시청사에서 의회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짧은 계단과 복도가 반복되는데 세이나요키 시청사의 계단손잡이와 동일한 형태의 목재 계단손잡이가 복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계단은 복도의 부분을 구성하며 벽과 동일하게 벽돌을 사용하되 벽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여 복도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계단을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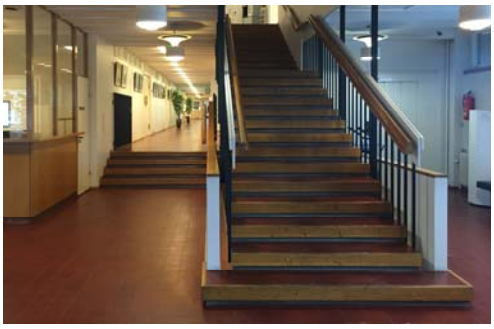


그림 3-30 세이나요키 시청사 홀의 주계단과 기타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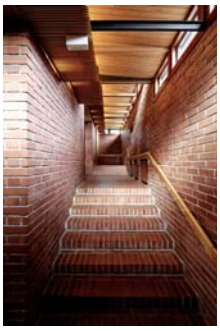


그림 3-31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계단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한층 높이만큼 높은 중정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동쪽과 서쪽에 두 개가 있다. 이 두 계단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서쪽 계단은 나무로 틀을 만들고 흙을 채워서 만들었다. 디딤판들의 폭이 매우 넓은 이 계단에서는 식물이 자라고, 따라서 계절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 이 계단은 실제로 지면으로부터 인공적으로 높게 만든 중정이 지면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연속되는 지형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계단으로 인해 중정에 만든 인공 자연이 이어지면서 건물이 지형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동쪽 계단은 시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 출입 동선에 위치한다. 계단은 가공된 석재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계단과 더불어 계단이 건물과 만나는 부분에 벽돌 조적벽의 하부 경계선을 들어올리기 위해 계단을 따라 덧댄 부분에 어두운 화강암 사용했다. 계단 영역의 재료는 전체 건물이 붉은색 벽돌로 되어있는 것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계단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림 3-32 세이나찰로 시청사 야외 계단 (좌: 서쪽 계단, 우: 동쪽 계단)

다시 마이레아 주택으로 돌아와서, 2층 스튜디오에서 중이층으로 연결된 계단은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계단손잡이를 끈으로 하여 가볍게 보인다.[그림3-33] 이 계단에 대한 도면을 보면 중이층의 난간이 목재로 만들어져서 그 디자인과 함께 계단의 디자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튜디오는 3.1.2소절에서 살펴봤듯이 천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창문을 만들어서 빛으로 가득 찬 밝은 공간으로, 이와 조화를 이루는 가벼운 구조로 계단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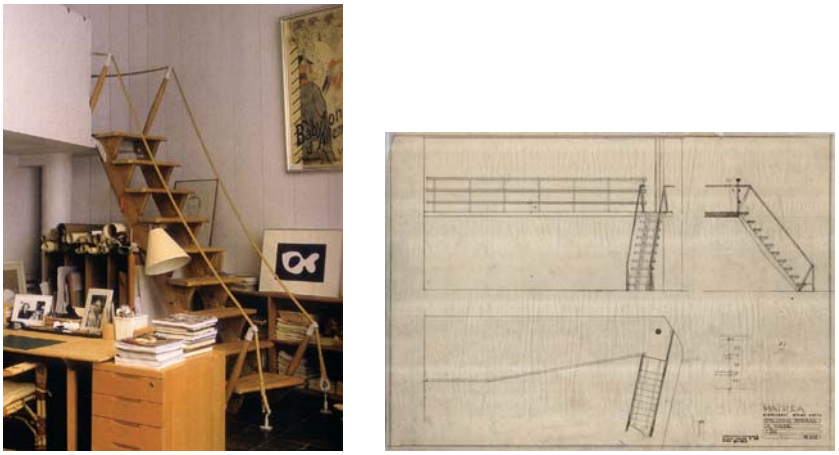


그림 3-33 마이레아 주택 스튜디오 계단의 모습과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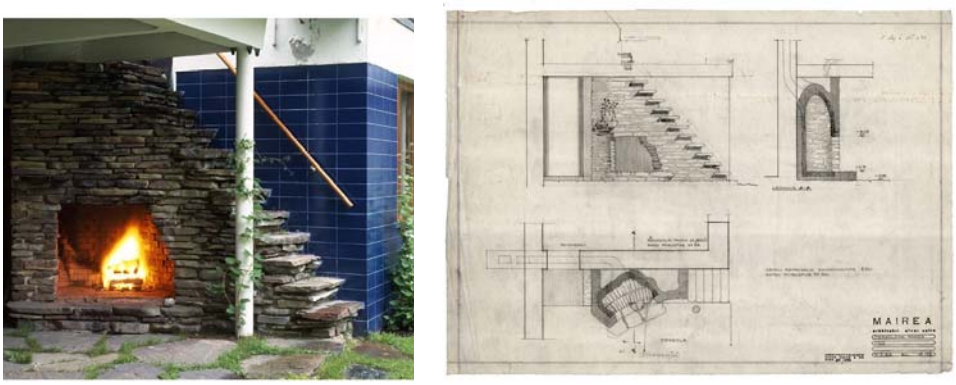


그림 3-34 마이레아 주택 외부 계단의 모습과 도면

야외 난로와 결합되어있는 계단은 정원에서 2층 발코니로 이어진다. 석재를 쌓아 만든 야외 난로와 계단은 정원과 연결되는 캐노피 아래의 공간에서, 석재 바닥과 식물들과 어우러져 자연을 닮은 공간을 구성한다. 얇은 석재를 쌓아서 만든 난로 위에 만들어진 계단은 넓은 석재 판을 디딤판(tread)으로 사용해 만들어졌다. 계단이 접해있는 건물이 파란색 타일로 마감되어서 재료의 대비가 강하게 발생한다. 계단의 손잡이는 목재를 사용해서 재료 자체로는 석재 계단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디자인은 간결한 원형 목재로서 모던한 디자인의 건물과 어우러진다. 난로 쪽에서 계단의 일부가 보이는데, 이는 앞서 마이레아 주택의 현관문의 개구부를 통해 문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을 통해 건너편 공간으로 가기 전에 그 공간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계단의 일부가 노출됨으로써 계단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각각 계단의 상황과 계단 주변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알토는 계단을 공간에 놓이는 오브제로서 그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건축 요소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신체를 담아내는 영역으로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토가 설계한 많은 건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계단의 시작점 또는 끝점에서 시선을 주변 공간으로 열어주는 것은 특히 공공건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계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미리 반대쪽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이다. [그림3-35]을 보면 세이나요키 극장 1층 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극장 앞 홀에서 극장으로 들어가는 계단, 라티(Lahti) 교회의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헬싱키 핀란디아 홀의 계단에서 계단에 진입하는 혹은 계단에서 나오는 영역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개방해주려는 설계를 발견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수직 목재가 시선을 열어주면서 일종의 면을 형성하는 동시에 계단손잡이는 그대로 이어지고, 계단의 끝에서 꺾여서 계단 바깥으로 이어진다. 계단 손잡이가 바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앞서 살펴본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주 계단의 손잡이와 마찬가지로 계단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유도하고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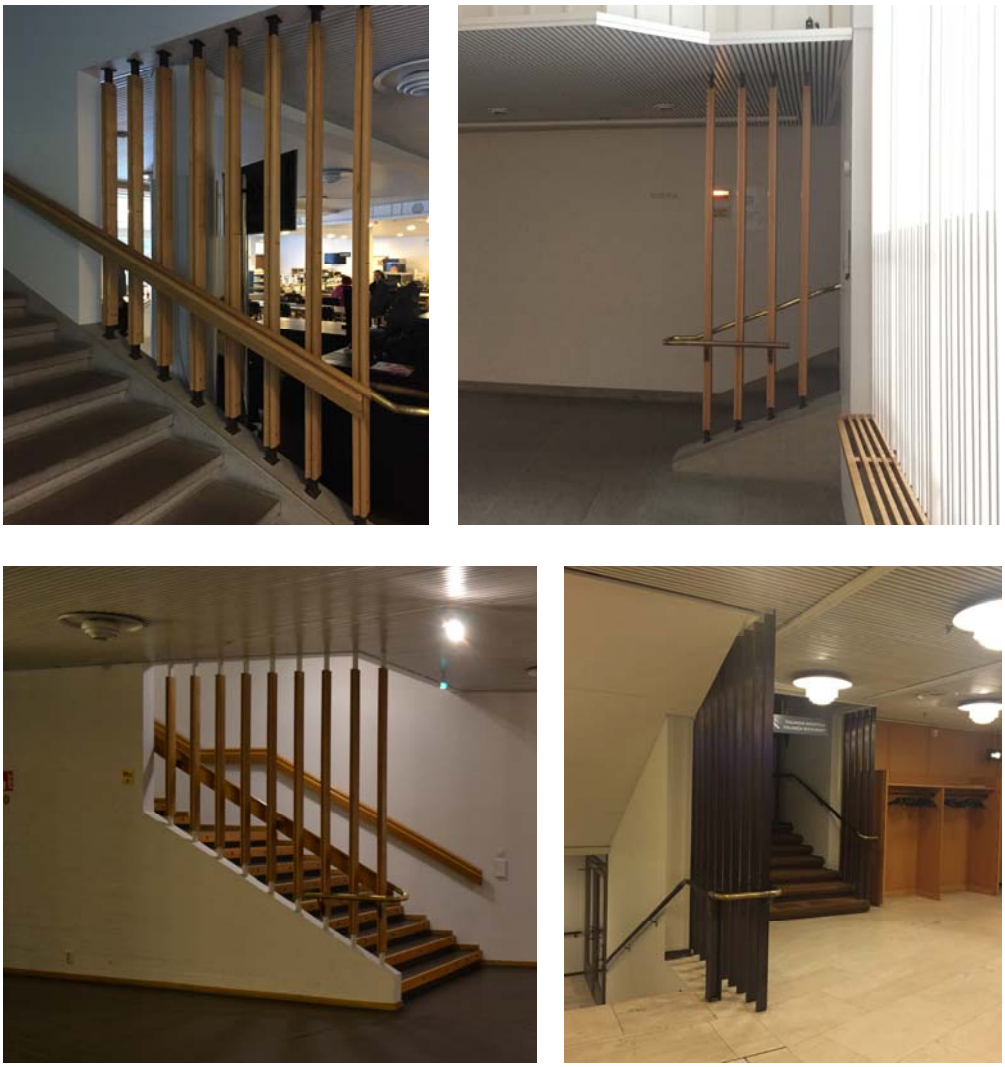


그림 3-35 계단 끝에서 시선을 열어주는 디자인 (상단: 세이나요키 극장, 좌하: 라티 교회(Lahti Church), 우하: 헬싱키 핀란디아 홀)

3.2. 신체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 영역을 갖는 건축요소

3.2.1. 창문: 건물 내부와 외부

창문은 내부 공간과 외부 자연의 차단과 연결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건축요소이다. 유리의 발달로 창문에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빛을 통과시켜 시선을 바깥으로 열어줄 수 있게 되었고 창문을 열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들일 수 있게 된다.[35] 즉 창문은 빛과 신선한 공기를 건물에 제공하는 건축요소인 것이다. 2장에서 살펴봤듯이 알토는 내부 공간과 자연의 사이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도 건물에 속하는 외부 공간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런 설계를 많이 하였다. 그의 건축에서 창문은 건물에 포함되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건축 요소였다. 동시에 빛이 부족한 핀란드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창문은 빛을 건물 내부로 들이기 위한 중요한 건축 요소이기도 하다. 즉 알토의 건축에서 창문은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도 내부 공간의 빛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건축 요소이다. 특히 창문을 열어 외부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작은 영역을 건물 내부에서 창문 근처에 형성하는 것이 알토의 창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알토의 건축에서 각 공간의 성격과 그 공간에 필요한 분위기와 환경에 알맞도록 설계되는 창문들의 개별성과 집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마이레아 주택 1937-1939

거실 창문

거실에서 벽난로 부분을 제외하면 중정을 향하는 면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다. 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 창문을 떼어내면 거실과 중정이 하나의 공간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내부와 외부 자연을 동시에 느끼며 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창문 앞에 작은 책장을 두고 창문 한쪽의 문만을 사용한다. 창문을 열어 거실이 중정과 연결될 때와 달리, 이때는 창문은 바깥 정원과 거실을 단절시키면서, 내부와 외부 자연의 거리를 떼어주고 외부 자연을 관망의 대상으로 만든다. 중정 건너편에는 사우나가 보이고 그 너머에는 큰 나무들이 이루는 숲이 보인다. 캐노피와 사우나 건물의 지붕에 풀이 자라서 나무들이 이루는 그 배

35) Richard Weston, 김광현·서울대건축의장연구실 역,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SEEDPOST, 2012, p. 28

경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우나가 지어짐으로 인해 저 멀리에 있는 나무들이 가까이 다가온다. 거실에서 창문을 통해 중정을 내다볼 때 수영장은 왼쪽에 일부가 보이는데, 그 결과 마치 호숫가의 숲을 바라보는 것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북쪽을 향하여 있는 거실의 창문을 통해서 강한 빛보다는 희미하게 퍼지는 빛이 들어와 거실을 채운다.

그림 3-36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창문

그림 3-37 마이레아 주택 베이 윈도우

베이 윈도우

주택 2층 남쪽에 배치된 침실들은 책상 위에 벽면 바깥으로 돌출된 창문인 베이 윈도우를 갖는다. 창문은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벽에서 돌출된 만큼의 공간을 가진다. 책상 위에 위치해 적극적인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 보이지만 공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창문은 잠재적으로 여러 사용 가능성을 갖는다. 이 창문들은 주택 남쪽에 있는 큰 소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을 향해 돌출된 작은 면과 큰 면을 갖는데, 두 면에는 각각 바깥으로 열리는 창문들이 있다. 창문은 밝은 빛과 숲의 광경을 방 안으로 들이고, 창문을 열면 바깥의 공기를 실내로 들여서 안에서 바깥 자연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큰 거실의 창문

주택 1층 '큰 거실'은 원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겸하도록 설계되었다. 큰 거실의 한쪽에는 두 면이 창문으로 되어 따뜻한 빛으로 가득한 모여 앉는 공간이 있다. 남쪽을 향한 창은 이 공간을 주택에서 가장 밝은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의자 높이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큰 창문이 두 면을 둘러싸면서 바깥 숲의 풍경을 내부로 들인다. 창문들은 이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바깥 숲을 넓은 시야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 사람들은 숲으로 둘러싸인다. 창문틀을 따라 식물이 자라는데, 이는 창문의 윤곽을 지워주고, 주변 나무를 닮은 기둥들과 가는 목재로 만들어진 가벼운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숲을 닮은 공간을 구성한다.

그림 3-38 마이레아 주택 큰 거실의 창문

그림 3-39 큰 거실을 둘러싸는 숲

스튜디오 창문

스튜디오에는 천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창문이 있다. 이 창문은 핀란드의 문화적 정신의 지주인 예술가 Akseli Gallen-Kallela가 설계한 본인의 작업실 겸 주택에 사용된 거실 창문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다.[36] Gallen-Kallela 주택에서 이 창문은 북쪽을 향하면서 키가 큰 소나무들이 이루는 숲의 광경을 거실에 전해주면서, 2층 높이의 거실 전체를 밝게 해준다. 이 창문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마이레아 주택 스튜디오 창문은 북서쪽을 향하여 낮에도 강한 빛을 들이지는 않으면서 스튜디오 공간 전체를 밝게 한다. 창문은 바깥 테라스로 이어지는 문과 결합되어있고, 문 옆에는 작업을 위한 책상이 놓여있다. 스튜디오에는 이 책상

36) 김현섭, <A Study on Alvar Aalto and His Experimentation in Villa Mairea>, 박사학위논문, 2005,p.135

외에도 창문과 떨어진 위치에 책상이 하나 더 있다. 스튜디오의 창문은 창문 아래에 밝은 빛으로 둘러싸이는 영역을 형성하고, 바깥의 숲을 작업 책상 앞으로 가져다준다.

그림 3-40 마이레아 주택 스튜디오의 창문

그림 3-41 Gallen-Kallela 주택 거실의 창문(좌측)

(2) 세이나찰로 시청사

복도 창문

중정을 감싸는 배치의 건물에서 복도는 중정의 두 면에 접한다. 복도를 따라서 중정을 향해 큰 창문이 연속적으로 있다. 벽돌 벤치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따라 수직 목제 창틀과 검정색으로 칠해진 철제 기둥이 반복 배열되어 복도에서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 리듬감을 만든다. 복도를 따라 반복되는 수직성이 강한 부재들은 창밖 건물 너머로 보이는 나무의 수직성과 조화를 이루고, 벤치에 올려진 식물은 바깥 자연의 일부가 실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또한 이런 요소들을 거쳐서 들어오는 빛은 내부 공간을 숲을 닮은 공

그림 3-42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중정

그림 3-43 창문을 통해 전해지는 자연

간으로 만든다. 한편 중정에 있는 작은 연못은 중정의 북쪽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난 복도의 창문 바로 앞에 위치한다. 맑은 날 이 연못에 반사된 빛은 복도의 천장에 비춰져 연못의 물결을 복도에 전달하여 표현해준다. 여기서 창문은 시각적으로 투과되는 속성을 통해서 실내 공간에 바깥 자연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한편 복도의 창문은 안쪽으로 열리기도 하는데, 창을 열면 신선한 외부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바깥 자연을 더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벤치에 앉아서 창문을 열면 바깥의 인공 자연을 눈으로 즐기면서 신선한 공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영역이 만들어진다. 또한 동쪽 창문의 일부에 창문틀을 따라서 중정에서 넝쿨식물이 자라도록 하였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식물의 잎을 거쳐 내부로 들어온다. 창문 옆에는 식물의 그림자가 생겨서 자연 속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림 3-44 창문을 연 모습

그림 3-45 창문을 따라 자란 식물이 만드는 공간의 분위기

시청사 의회 창문

의회 회의장으로 가는 복도는 층고가 낮고 고측창이 있어 환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도를 지나 나타나는 회의장은 높은 층고를 갖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이다. 이 큰 공간은 루버가 조밀하게 붙어있는 창문과 지붕에 매달린 조명들에 의해 흐릿하게 밝혀진다. 서쪽을 향하는 창문은 창틀에 의해 20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뉜다. 창문에는 나무 루버들이 조밀하게 붙어있다. 루버는 위의 세 열의 창문에는 수직으로, 맨 아래 열에는 수평으로 붙어있는데, 이는 큰 회의장 공간에 필요한 빛의 성격을 만들기 위함이다. 서쪽을 향하는 창이기 때문에 수직

루버를 사용하는 것이 빛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맨 아래 열의 창문은 회의장 책상 높이를 밝게 비추기 위해 수평루버를 설치하여 공간의 윗부분에 비해 빛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 루버들은 하나하나 방향을 달리하여 무작위로 붙어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성격이 일정하지 않고, 모든 창에 나타나는 루버 그림자가 다른 모습을 한다. 알토는 일정한 간격을 갖는 기둥 배열이 발생하는 인공적인 리듬을 피하기 위해 마이레아 주택에서 기둥들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창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였다.

그림 3-46 세이나찰로 시청사 의회 회의장

그림 3-47 회의장 창문

3.2.2. 기둥: 주위 영역

마이레아 주택에는 총 28곳에 기둥이 있는데, 열여덟 종류의 기둥 디자인이 있다. 알바 알토는 마이레아 주택을 설계하면서 기둥의 배열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적인 리듬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기둥의 모습들을 다르게 하였다.[37] 김현섭은 바깥 기둥들은 자연의 나무를 직접적으로 차용하였고, 실내 기둥들은 나무를 추상화하고 있다고 말한다.[38] 그러나 기둥들의 디자인을 주변과 함께 살펴보면 실내 기둥들은 사람의 시각적, 촉각적인 반응을 고려하고 공간의 분위기와의 관계도 생각하여 디자인되는 경향이 보이는 반면, 실외에 놓인 기둥들은 상대적으로

37) Richard Weston,
38) 김현섭, <A Study on Alvar Aalto and His Experimentation in Villa Mairea>, 박사학위논문, 2005, p.259

단독적으로 디자인되어 오브제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주변에 영역을 형성한다. 그 중 실내에 있는 기둥들은 '신체-영역'들이 집합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소절에서는 실외에 있는 기둥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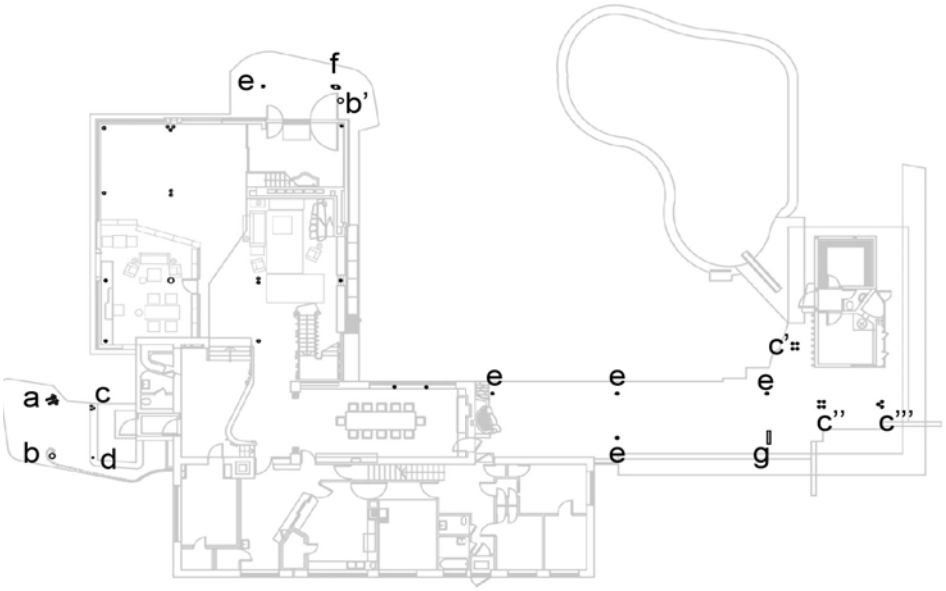


그림 3-48 마이레아 주택 실외 기둥들 (a~g, b', c', c'', c''')

실외에는 15곳에 위치한 기둥들이 총 열한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먼저 주택 현관문 앞 진입 공간의 기둥들을 살펴보면, 캐노피를 지지하는 네 기둥이 모두 개별적으로 디자인되었다.(그림 3-51에서 a, b, c, d) 가장 앞에 있는 기둥은 주춧돌 위에 다섯 개의 가는 목재 기둥을 세웠는데, 세 개는 바르게, 두 개는 앞으로 기울여서 기울기를 달리하고, 다섯 개 모두를 나무줄기로 각각 감으면서 엮어서 하나의 기둥 다발을 만들었다. 그 뒤에는 주춧돌 위에 세 개의 목재 기둥이 바르게 서있으며 주춧돌을 제외하면 이들을 엮어주는 요소는 없고 세 목재 기둥이 독립적으로 있다. 캐노피를 바라보고 오른쪽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원형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조밀하게 서있는 목재들에 의해 숨겨져 있다. 캐노피 공간의 기둥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하면서 자연의 나무를 닮아있다. 캐노피 아래에서 기둥들은 나무줄기처럼 느껴지고 주택 주변의 숲과 어우러져 작은 자연을 만든다.

그림 3-49 현관문 앞 캐노피 기둥들

그림 3-50 캐노피 기둥들 상세 사진

그림 3-51 온실 앞 캐노피 기둥들

그림 3-52 온실 앞 캐노피 공간

온실 앞 캐노피를 지지하는 기둥은 V자 모양으로 벌어진 철제 기둥, 원형 콘크리트 기둥, 원형 철제 기둥이 있으며 모두 흰색으로 칠해졌다.([그림 3-48]에서 b', e, f) 기둥들의 형태는 현관문 앞 캐노피를 받치던 기둥들과 비슷하다. V자 기둥은 캐노피의 기울기를 다르게 한 기둥다발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관문 앞 기둥 다발에 비해 나무의 형태를 더욱 추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기둥은 스튜디오인 2층 매스를 지지하기 위해 규격이 커져야 했는데, 가볍게 보이면서 온실에서 밖을 내다볼 때 시야도 덜 가로막는 디자인이 되었다. 흰색으로 칠해진 기둥들은 바닥에 깔린 하얀 돌들과 흰 탁자와 의자들과 함께 캐노피 아래 영역을 구성한다.

식당에서부터 사우나까지 이어지는 캐노피와 사우나 지붕이 연장되어 캐노피가 된 부분을 받치는 기둥들은 철제 기둥(e), 콘크리트 기둥(g), 목재로 엮어 만든 기둥 다발(c', c'', c''')로 매우 다양하다.[그림3-53] 이 기둥들은 캐노피를 지지하는 구조와 함께 독특한 장면을 만든다. 주택 건물 쪽에서 이어지는 캐노피는 콘크리트 보가 지지하는데, 철제 기둥으로 지지하다가 마지막에 사각형의 콘크리트 기둥이 나타난다. 목조로 지어진 사우나의 지붕은 목재로 된 보가 지지

하고, 그것을 목재를 엮어서 만든 기둥다발들이 지지한다. 두 캐노피가 만나는 곳에서 다른 재료의 구조와 다른 종류의 기둥들이 모인다. 콘크리트 기둥은 주택에서 사우나로 오는 사람에게 왼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유도한다. 세 개의 목재 기둥다발도 전부 다르게 만들어진다. 네 개의 목재로 구성되는 두 다발은 끈으로 엮는 방식이 다르고, 나머지 하나는 세 개의 목재로 구성된다. 목재 기둥들은 사우나 주변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주택에서 사우나로 가면서 철, 콘크리트, 목재로 재료가 변하는데, 이는 주택에서 사우나 너머 숲으로 향하면서 점점 자연에 가까운 재료로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3 사우나로 이어지는 캐노피의 기둥들

3.3. 신체와 밀접하게 맞닿는 건축 요소

3.3.1. 가구

알토는 가구를 만들 때 사물과 신체 사이의 감각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를 잘 고려하였다. 가구는 독자적으로 자기 모습을 가지고 공간에 놓인다. 대부분의 가구들은 사람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가구의 사용을 통해 공간의 직접적인 점유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알토는 가구 역시 건축 공간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 생각했고, 사람의 감각이나 움직임의 측면에서 편안함을 해치지 않기 위한 가구의 조건을 설명하기도 했다. 파이미오 요양원의 설계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는 가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요양원의 가구라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야하고 쉽게 닦을 수 있어야하고, 가벼워야하고, 진동을 흡수해야한다고 말했다.[39] 그는 가구를 사람의 행동과 감각의 대상이 되는 사물로 여겼던 것이다.

[그림3-54]의 의자는 1947년에 처음 디자인 되었다. 목재로 만든 구조 부분과 가죽으로 만든 신체가 닿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 팔이 의자에 닿는다. 팔걸이에서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 역할을 하는 목재 옆에 삼각형의 단면을 갖는 목재를 덧대고, 이들을 가죽 끈으로 묶어서 팔걸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팔걸이는 충분한 폭을 가지면서 울퉁불퉁한 면을 가져서 팔을 올려놓으면 팔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

그림 3-54 알토가 디자인 한 의자(1947)

그림 3-55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책상의 집합

39) Alvar Aalto(1940), "The Humanizing of Architecture" in Ibid., p.104

아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팔걸이에는 작은 영역이 만들어졌다. 엉덩이와 등이 닿는 부분은 의자의 가장 중심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등받이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몸이 깊숙이 들어가 등의 더 넓은 면적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다.

한편 알토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건축가들에 의해 디자인된 가구의 기능적인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 디자인된 것들도 많이 있다.[그림3-56] 미스 반 데 로에의 바르셀로나 의자(Barcelona chair, 1929), 데 스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와실리 의자(Wassily chair, 1925), 르 코르뷔지에 의자(1960년대)와 비교해보면 알토의 의자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편안한 의자인지 알 수 있다. 바르셀로나 의자는 앉으면 몸이 너무 뒤로 넘어간다. 팔걸이도 없는 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이런 의자는 영역의 전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다음 두 의자들은 팔걸이의 폭이 매우 좁고 불편하다. 또 몸이 들어가는 영역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유연하지 않고 단단해서 몸을 안락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없다.

그림 3-56 여러 의자들(좌: 바르셀로나 의자, 중: 와실리 의자, 우: 코르뷔지에 의자)

알토는 가구가 사람의 신체가 직접 닿게 되는 건축 요소이기 때문에 신체의 각 부분과 어떻게 닿을지에 대해 고민하여 세심하게 디자인하였다. 가구는 신체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명한 영역을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 알토는 가구가 사람에게 일으킬 감각적인 작용에 대해 깊게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알토는 2.3.2소절에서 설명했듯이 유연한 표준화를 통해 제작할 수 있는 가구의 디자인을 다양화했고, 공간의 성격에 맞는 가구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1) 결합 가능한 책상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삼각형 책상은 가구가 가지는 영역이 개별성을 유지하면

서 집합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는 예시이다.(59페이지 [그림3-55]) 삼각형의 책상들은 각각 하나의 의자를 갖고 앉는 영역을 만든다. 사람이 앉아서 사용하는 영역은 책상에서도 신체와 가까운 쪽에 치중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책상의 집합은 공간 활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책상들은 서로 엇갈려 조합되어 책상에 앉는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마주보지 않아도 되며, 책상 하나를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개별 영역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 받는 일이 적다. 그러면서도 책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도록 한다. 책상들은 사이에 놓인 조명을 중심으로 그 빛을 공유하며 집합한다. 이렇게 개별 책상 영역들이 집합하여 만든 하나의 큰 영역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즉 개인적인 활동과 타인과 교류하는 활동 사이의 전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 영역은 즉각적으로 전이된다.

이런 개념의 책상은 로바니에미 도서관의 열람공간과 세이나요키 극장의 카페테리아에서도 발견된다. 로바니에미 도서관의 책상은 조명을 공유하면서 집합하는 모습이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책상과 동일하다. 한편 세이나요키 극장의 탁자는 삼각형의 모를 딴 형태의 육각형의 탁자들이 놓여있다. 탁자들마다 세 개의 의자들이 같이 놓여 있는데,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책상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탁자들을 이어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카페테리아라는 용도의 특성상 공간을 전체적으로 환하게 밝히는 조명들 아래에 놓여서 특별히 조명을 공유할 필요 없이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탁자들을 연속시켜서 모여 앉기에도 적합하다.

그림 3-57 개별 책상들이 결합될 수 있는 디자인(좌: 로바니에미 도서관, 우: 세이나요키 극장)

(2) 마이레아 주택

마이레아 주택에서는 각 공간에 놓인 가구들의 디자인이 다양하다. 그 중 의자들을 간단히 분류해보면 (1)포근하면서 무게감 있어 보이는 소파들, (2)가는 목재를 사용해서 만든 가벼워 보이는 의자와 탁자들, (3)목재와 천 또는 가죽을 이용해 만든 의자들로 나눌 수 있다.

마이레아 주택에서 소파는 주로 거실과 서재에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소파는 등받이와 팔걸이, 앉는 부분이 모두 푹신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사람이 소파에 앉으면 몸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푹신한 면에 감싸이고, 의자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몸이 가구와 맞닿게 된다. 결과적으로 촉각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의자이다. 한편 소파는 사람들의 다양한 자세를 수용해주는데, 이 때문에 소파는 사람들에게 더 큰 편안함을 준다. 소파가 놓이는 거실과 서재 모두 사람들이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파에서는 사람의 활동이 바뀔 때 신체가 형성하는 영역이 즉각적으로 전이되는 가구이다. 또한 주로 직물이나 가죽으로 마감되는 소파는 강한 빛을 반사하지 않고 따뜻한 촉감을 느끼게 하여 주변 공간의 분위기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

큰 거실과 온실에는 가는 목재로 만든 가벼운 의자와 탁자가 놓여있다. 두 공간은 모두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건물 밖 숲과 중정의 풍경을 갖는다. 또한 나무를 닮은 기둥이나 실제 식물이 자라는 공간으로, 숲을 닮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에 알토는 가는 목재로 만든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식물들과 햇빛으로 가득한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하였다.

한편 주택 전체적으로 알토의 전형적인 가구인 표준화된 목재와 가죽 또는 천으로 만들어지는 가구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가구들은 앞의 두 종류의 가구들에 비해 조금씩 차이를 주면서 대량 생산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가구들은 주택에서 주로 여럿이 모여 앉는 곳, 즉 서재의 여럿이 둘러앉을 수 있는 책상이나 식당의 탁자, 2층 난로 앞 탁자 등에 사용되었다.

가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체를 맞대면서 점유하는 건축 요소로, 사람들에게 행동을 암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알토는 가구의 디자인을 통해서도 각 공간의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다.

그림 3-58 마이레아 주택의 소파(좌: 서재, 우: 거실)

그림 3-59 마이레아 주택의 목제 가구 (좌: 큰 거실, 우: 온실)

그림 3-60 마이레아 주택의 알토 전형적인 가구 (좌: 서재, 우: 식당 앞 공간)

3.4. 소결

건축 공간에서의 경험은 사람들이 건물을 이루는 여러 사물들로부터 느끼는 감각과 감정의 총체로 만들어진다. 건축에서 사물들은 사람의 감각과 지각, 사고의 대상이 된다. 알바 알토는 건축에서 신체 주변에 놓이는 크고 작은 사물들이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따라서 그의 건축에서는 작은 건축 요소들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디자인된다. 이렇게 디자인된 모든 사물들은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집합하여 전체 건물을 완성한다.

지금까지 알토의 건축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들을 신체와 관련되어 어느 정도의 영역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문과 계단은 사람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과 관계가 깊은 건축 요소이다. 문의 경우 사람이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통과하여 다음 공간에 들어서고 문을 닫는 일련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건축 요소이고, 계단은 사람이 계단에 접근하여 여러 단을 디디며 이동한 뒤 계단에서 나오는 일련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알토는 두 건축 요소가 사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영역을 갖는 건축 요소라는 점을 잘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창문과 기둥은 다른 건축 요소들에 비해 신체와 비교적 덜 밀접한 건축 요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시각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게 되는 요소이면서, 공간을 이루면서 주변에 영역을 형성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가구는 건축 요소 중에서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건축 요소로, 알토가 매우 세심하게 디자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는 동시대에 활동한 다른 건축가들과 다르게 신체의 각 부분에 대응하는 작은 영역들을 갖는 가구를 만들었다. 또한 개개의 책상의 개별성이 지켜지면서 여러 개를 결합하여 집합을 형성할 수 있는 책상 디자인과,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쌓아둘 수도 있는 의자 디자인은 알토의 가구 디자인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알토의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건물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건축 요소들을 모두 함께 바라봐야 한다. 만약 그의 건축 공간에서 작은 사물들을 빼놓는다면 그의 건축이 갖는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건축 공간의 환경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크고 작은 사물들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

요소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은 물성이 지워지고 색만 남은 벽면, 기둥, 난간 등의 건축 요소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간에 놓이는 가구 등의 사물들이 건축 공간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이 건축 공간을 경험함에 있어서 그만큼 다양한 감각적,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주로 시각적인 정보로만 건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알토의 건축은 작은 사물들까지도 신체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 하에서 만들어지고 사물이 만드는 주변 영역에 대한 생각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양한 감각적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 신체의 다양한 기능에 편안한 건축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4.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

4.1. '신체-영역'의 형성
4.1.1. 감각에 의한 사물들의 집합
4.1.2. 요소 공유와 중심성을 갖는 영역 형성
4.1.3.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
4.2. ‘신체-영역’의 집합 양상
4.2.1. 건축 요소에 의한 공간적 통합
4.2.2. 인접관계
4.2.3. 건축 요소에 의한 맥락적 통합
4.3. 소결

알바 알토는 신체 주변의 가구, 재료, 빛 등 작은 요소들로 사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감각적 환경인 '신체-영역'을 만든다. 주택은 건축의 시작이다. 주택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다루는 건축이다. 알바 알토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체-영역’이 형성되는 원리와 그 형성 요소를 밝힌다. 그 후 신체-영역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집합하여 큰 공간을 이루고 전체 건물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확장하여 공공건물에서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신체-영역’의 형성

알바 알토는 신체 주변의 가구, 재료, 빛 등 작은 요소들로 사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감각적 환경인 '신체-영역'을 만든다. 신체-영역을 만드는 요소들은 저마다 특정 감각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행동을 암시하면서 사람와 관계를 맺는다. 신체-영역은 다양한 인간의 감각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느슨하다. 또한 이런 신체-영역들이 일부 요소와 그것이 주는 감각을 공유하면서 모여서, 건축 공간 내에 개별성을 갖는 영역을 이룬다.

신체-영역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주변의 사물들과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신체와 사물이 맺는 관계의 총체로 하나의 신체-영역이 형성된다. 그 다음으로 신체-영역들은 일부 요소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더 큰 신체-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건축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물 또는 그것이 만드는 현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신체-영역을 형성하는지, 그 형성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헤르만 헤르츠버거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주변의 환경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앉을 수 있어야 한다.[40] 따라서 ‘신체-영역’이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앉을 수 있는, 즉 신체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지점들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

40) Herman Heretzberger, 안진이 역,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효형출판, 2009, p. 17

4.1.1. 감각에 의한 사물들의 집합

앞서 2.1절에서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사람이 건축을 이루는 사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살펴봤다. 신체-영역의 형성은 이 사물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동시에 사람과 여러 사물의 관계를 맺으면, 그 총체가 바로 신체-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을 이루는 사물들이 사람의 감각이나 심리 등의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감각적'이어야 한다.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에서, 소파에 앉는 사람은 몸과 발이 각각 소파와 카펫에 의해 감싸인다.[그림4-1] 카펫은 앉은 사람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며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줄여주기도 한다. 소파 옆 조명에서 나오는 빛은 사람에게 밝기와 온기를 줌과 동시에, 사람이 그 빛에 감싸여서 신체 주변에 아주 가깝고 작은 영역감을 느끼게 한다. 옆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인 난로는 온기를 느끼게 하며, 멀리에 있는 기둥은 나무로 마감되어 시촉각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소파에 앉은 사람은 따뜻하고 포근한 환경에서 조명의 빛이 만드는 작고 개인적인 신체-영역을 가진다.

거실은 많은 시간 개인의 공간이 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실은 주택에서 다른 방들과 비교할 때 가장 사회적인 공간이다. 거실은 다른 어떤 방들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거실은 개인의 작은 영역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교류하기 위한 영역을 형성할 여지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신체-영역의 즉각성과 유연함이 도움이 된다.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전등 빛에 둘러싸여 있던 신체는 소파에서 등을 떼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탁자를 중심으로 하는 큰 영역을 형성한다. 이것이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체-영역의 총체이다.

이런 양상은 마이레아 주택의 서재에서도 나타난다.[그림4-2] 서재의 소파에 앉은 사람은 몸과 발이 소파와 카펫에 의해 감싸이며, 옆에 있는 조명에서 나오는 빛에 둘러싸여 신체 주변에 작고 가까운 영역감을 느끼게 한다. 탁자는 서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암시한다.

거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서재의 소파에서 혼자 책을 읽을 때에는 소파 주변에서 작은 신체-영역이 형성된다. 하지만 탁자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기를 원한다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앉아, 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더 큰 신체-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즉, 행동의 변화에 따라 신체-영역도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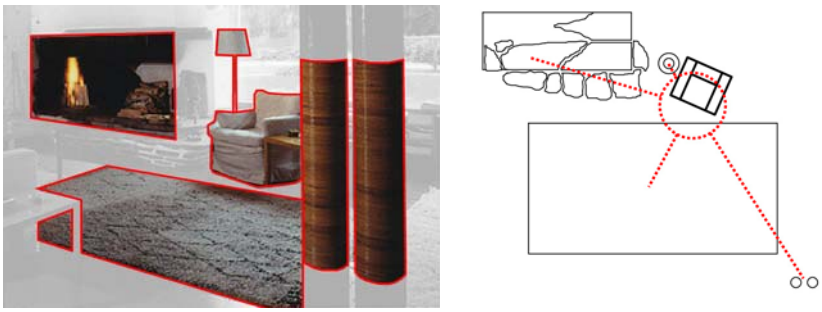


그림 4-1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신체-영역 형성 요소

그림 4-2 마이레아 주택 서재의 신체-영역 형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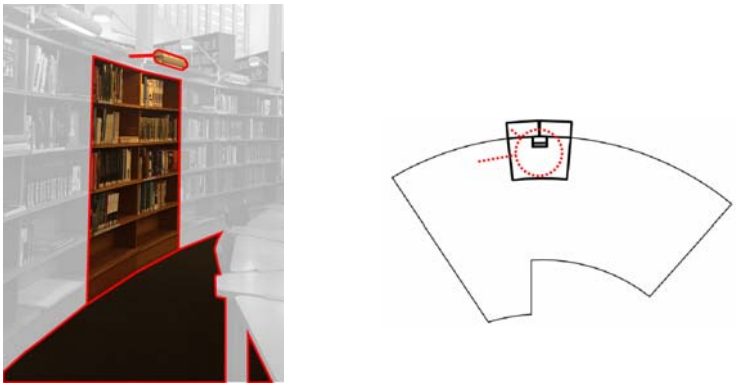


그림 4-3 세이나요키 도서관 서가의 신체-영역 형성 요소

각적으로 전이된다. 이는 신체-영역이 물리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고, 신체 주변의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반응과 암시하는 행동들로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이나요키 도서관에서는 서재 앞 신체-영역이 많이 나타난다.[그림4-3] 사람들은 서가 앞에 서서 책을 찾고 탐독한다. 서가 바로 위에 설치된 조명은 아래를 향하며 서가를 비춘다. 조명은 서가에 꽂혀있는 책등과 사용자가 꺼내어 펼치는 책을 비춘다. 서재 앞에서 사람은 발이 카펫에 의해 감싸이고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조명에서 나오는 빛에 감싸인다. 조명은 책을 찾고 읽는 데 필요한 조도를 제공하고 책장은 책을 찾고 읽으라고 행동을 암시한다.

4.1.2. 요소 공유와 중심성을 갖는 영역 형성

사람과 사물의 관계의 총합으로서 형성된 신체-영역들은 각 영역의 특정 형성 요소를 공유하면서 보다 더 큰 신체-영역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 사물이 중심으로 작은 신체-영역들이 모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작은 중심성을 갖는 신체-영역들이 큰 중심성을 갖는 하나의 신체-영역을 구성하게 된다.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에서는 여러 신체-영역들이 난로의 따뜻함과 카펫이 주는 촉감을 공유하며 모여든다. 이때 중심은 사회적 행동을 암시하는 탁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거실에는 더 커진 하나의 중심성을 갖는 신체-영역이 형성된다. 이 영역은 전체적으로 은은한 밝기의 빛과 온기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분위기 속에 여러 중심성을 가지는 작은 신체-영역들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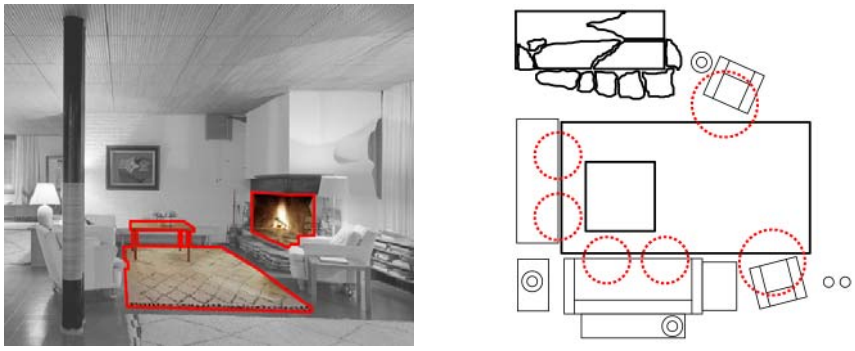


그림 4-4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신체-영역들의 집합

이렇게 작은 신체-영역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중심성을 갖는 거실 영역 또한 하나의 개별적인 신체-영역이 된다. 사람은 작은 신체-영역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신체-영역의 부분이기도 하다. 이 안에서 사람이 다른 위치로 움직인다면 그 위치를 중심으로 신체와 사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그 전이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알토의 건축 공간에서는 사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편안함을 제공해준다.[41] 따라서 신체-영역으로 구성되는 알토의 건축 공간에서 사람은 계속해서 공간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게 되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중심이 되는 건축 공간이다.

한편 마이레아 주택보다 조금 일찍 1931년 완공된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사보아 주택은 건물을 구성하는 사물들이 사람의 총체적인 감각적 반응을 잘 일으키지 못한다. 거실의 두 벽에 붙어서 작은 폭을 갖는 탁자가 이어지고 그 위에는 코르뷔지에가 근대 건축의 5원칙 중 하나로 언급한 수평창이 길게 이어진다. 거실의 한쪽 면 중간에 작은 난로가 있고 사각형 평면을 갖는 작은 기둥처럼 보이는 굴뚝이 이어진다. 난로는 너무 작아서 땔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난로가 주택의 중심이 되어주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지 못한다. 난로는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두께도 얇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아서 거실의 큰 공간을 따뜻하게 할 정도로 열을 방사해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르뷔지에에게는 사람이 생활해야 하는 주택 본연의 역할보다 자기의 건축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수평창을 길게 만들고, 대부분의 건축 요소들을 하얗게 표백처리하고 물성을 지웠다. 그 결과 사람의 다양한 감각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신체의 여러 기능과는 동떨어진 건축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그림 4-5 사보아 주택의 거실

그림 4-6 거실에서 바라본 테라스

41) Alvar Aalto(1930), "The Housing Problem" in Göran Schildt ed., op. cit., p. 78

거실 천장 중앙을 따라 길게 설치된 조명은 반사도가 큰 철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조명의 빛은 위쪽으로만 비추어 천장 면을 밝히는 간접조명이다. 거실에는 이 조명 외에 다른 조명이 있지 않다. 앞서 알토의 여러 건축에서 조명이 얼마나 신체 가까이에서 사람의 활동을 위한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코르뷔지에는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신체의 감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건축을 하였다. 거실의 한쪽 면은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있고 밖으로 테라스가 면해있다.[그림4-6] 코르뷔지에는 창문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창문 주변, 즉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은 결과적으로 단순한 창문에 불과하고, 시각적으로 바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부로 들일뿐이다.

다시 마이레아 주택으로 돌아오면 서재에서 개별 신체-영역들은 일차적으로 탁자와 흰 기둥을 중심으로 둘러싸며 더 큰 신체-영역을 이룬다.[그림4-7] 개별 신체-영역들은 같은 밝기와 바닥의 촉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교류를 일으키는 중심이 될 수 있는 탁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신체-영역을 구성한다. 거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행동을 할 때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할 때의 신체-영역의 전이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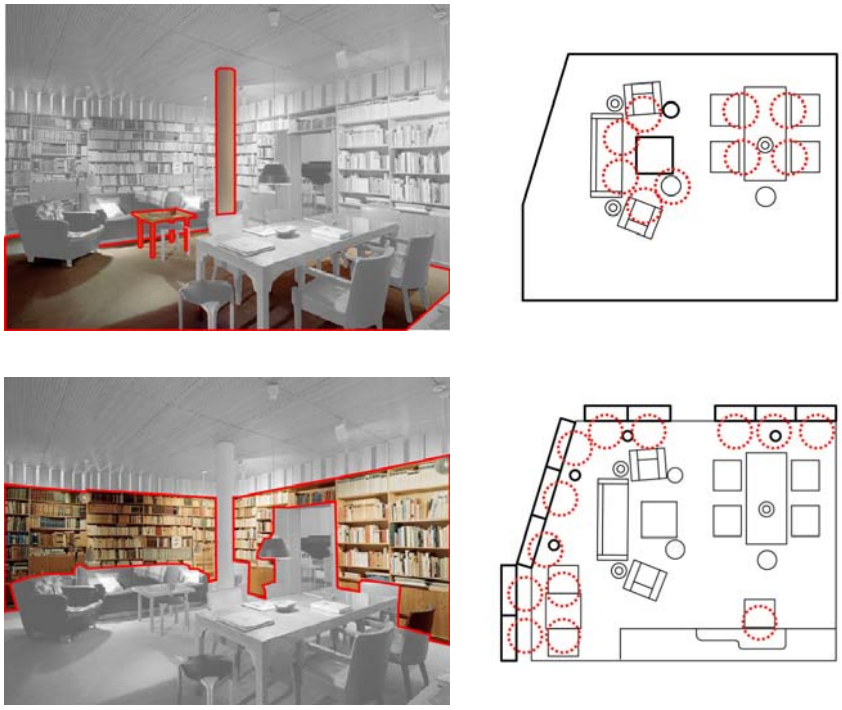


그림 4-7 마이레아 주택 서재의 신체-영역의 집합

이렇게 형성되는 독서 영역은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독서 영역을 중심으로 책장 앞에 형성되는 신체-영역들이 모여서 전체 서재 공간을 구성한다.[그림4-7] 서재 앞에 서있는 사람은 책장과 마주하며, 책장을 비추는 조명의 빛, 카펫의 촉감이 만드는 신체-영역을 갖는다. 이런 영역들은 서재의 두 벽을 따라 형성되고, 독서 영역을 둘러싼다. 서재는 여러 겹으로 감싸는 신체-영역들로 구성된다. 독서 영역과 책장 영역은 각각 안쪽을 지향하는 중심성과 바깥을 향하는 중심성을 갖고, 각 영역에서의 사람의 시선의 방향이 반대여서 두 영역은 독립적이다.

세이나요키(Seinäjoki) 도서관의 선큰 독서 공간에서 책장 앞에서 형성되는 신체-영역은 책장 위 조명에 의한 빛 환경과 카펫 바닥이 주는 감각을 공유하면서 공간의 가운데에 놓여있는 책상 영역을 중심으로 모여 큰 신체-영역을 이룬다. 책장 앞 영역과 책상 영역은 서로 시선의 방향이 다르고 책장에서 뒤로 돌아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 영역의 전환을 위한 행동이 있어서, 물리적 경계는 없지만 명확히 구분된다.

중심이 되는 책상 영역 자체도 책상 하나하나의 자리에서 형성되는 신체-영역의 합이다. 책상 위에 놓인 조명은 앉은 사람 눈높이보다 조금 위에서 책상 면을 환하게 비춘다. 이 조명은 아래로는 여러 겹의 반사판에 반사되면서 산란되는 밝은 빛을 비추는 반면, 옆으로는 얇은 틈으로 새어 나오는 약한 빛을 비춘다. 독서하는 사람에게 개인의,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신체-영역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독서를 하거나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 각각 사용자의 영역은 달라진다.

이 공간은 열람실 전체 공간 속에서 여러 겹의 환경 요소들에 에워싸여 도서관에서 가장 내밀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독서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주변은 책이 꽂혀있는 서가가 둘러싸고, 이 모습은 직물의 텍스쳐와 유사한 촉각적 느낌을 준다. 서 있을 때는 서가에 있는 사람들과 시선이 통하지만, 의자에 앉으면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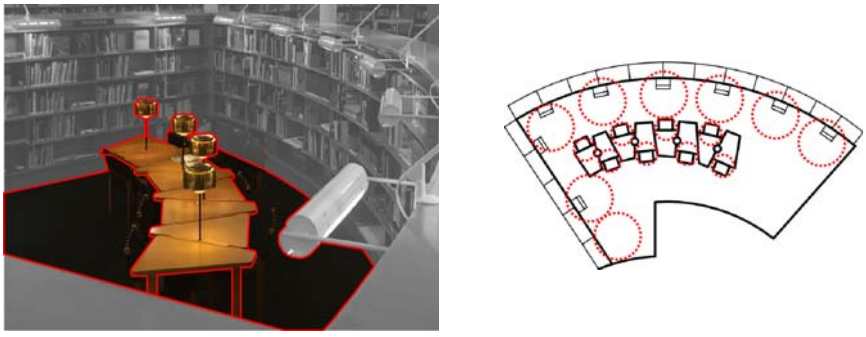


그림 4-8 세이나요키 도서관 선큰 독서 공간의 신체-영역의 집합

서가에 의해 주 열람실의 거의 모든 부분이 가려지고, 서고에 있는 서가들의 윗부분과 그 위로 고측창, 그리고 천장 면들이 겹쳐서 보인다.

4.1.3.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

신체-영역은 신체와 닿는 가구와 바닥, 신체 주변의 빛과 건축 요소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신체-영역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들을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라고 하면, 이 요소들은 사람들에게 감각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행동을 암시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신체-영역 형성 요소들이 각각 어떤 감각을 주로 발생시키며 어떤 종류의 행동을 암시하는지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바닥, 조명, 가구들이 다양한 감각적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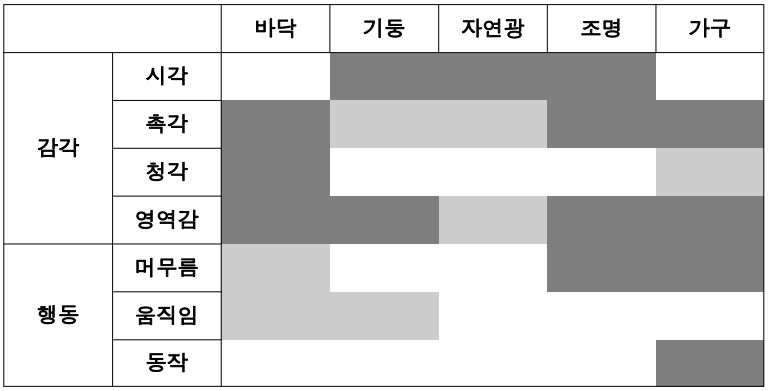


표 4-1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들이 일으키는 감각과 행동

(1) 바닥

마이레아 주택에서 실내외 바닥에는 크게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암적색 타일과 목재 그리고 석재이다. [그림4-10]을 보면 마이레아 주택의 바닥 재료 계획을 알 수 있다. 거실과 식당은 암적색 타일이 깔려 있다. 중정을 향하는 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은 빛을 많이 반사하지 않는 어두운 색의 점토로 만든 타일이 사용되었다. 목재 바닥은 남쪽 큰 거실과 서재, 그리고 사우나와 수영장 사이에 사용되었다. 남쪽을 향하는 큰 거실은 창문을 통해 바깥 숲이 보이고 밝은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숲을 상징하는 기둥들과 식물들이 자라는 공간이다. 여기서 사람은 천연 재료인 목재 바닥에 서게 되고 목재 바닥은 햇빛을 눈부심 없이 적당히 반사하여 공간을 따뜻한 색으로 채운다. 서재의 목재 바닥은 가구에 의한 진동이나 소음을 줄여줘 독서를 하거나 개인의 공간으로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림 4-9 마이레아 주택의 바닥 재료 (좌: 거실, 중: 큰 거실, 우: 온실)

석재 바닥은 현관문 앞의 캐노피 공간과 온실과 그 앞 테라스 바닥 일부, 그리고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 사우나로 이어지는 캐노피 공간에 사용되었다. 온실도 완전한 실내라기보다 외부의 빛을 적극적으로 받고 물도 사용하는 외부 공간에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마이레아 주택에서 석재 바닥은 외부 공간에 사용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석재 바닥은 주변 바닥에 자라는 식물들과 어우러져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만든다. 바닥에 석재를 사용하면 돌의 질감을 눈과 발로 느낄 수 있다. 마이레아 주택의 실내 바닥에는 여러 곳에 카펫을 깔아서 사람들의 촉각적인 반응을 적극적으로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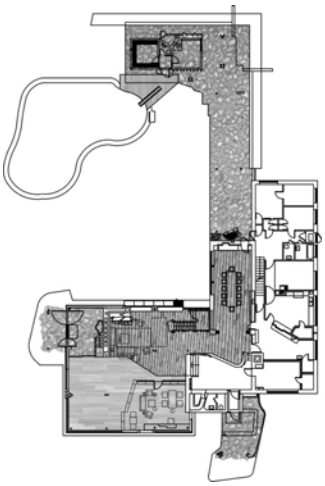


그림 4-10 마이레아 주택 1층 바닥 재료계획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복도에서도 바닥이 신체-영역의 형성과 집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이나 찰로 시청사 복도에는 창을 따라 벽돌로 만든 벤치가 길게 놓여있다. 벤치 주변 바닥에는 벽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바닥에는 흰 석재를 매끈하게 처리하여 사용했다. 벽돌과 매끈한 석재는 밟는 감촉이 다르고, 빛을 반사하는 정도도 다르다. 특히 벽돌과 석재 바닥은 각각 멈춤과 이동을 암시하고 있으며, 두 재료의 경계가 시각적으로 명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영역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4-11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복도 바닥 재료

한편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에서 바닥은 다른 건축 요소와 마찬가지로 물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알바 알토는 건물의 바닥은 사람의 발이 접촉하는 건축 요소이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빛을 반사하여 사람의 눈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코르뷔지에에게 바닥은 사람이 딛고 서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면이었다. 실제로 그가 설계한 여러 건물에서 바닥은 주로 줄눈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면을 만들거나 타일을 즐겨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바닥은 사람들에게 촉각을 포함해 어떤 감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미끄러져 지나가는 면이 된다.

다만 그는 바닥의 줄눈을 디자인함으로써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의 바닥은 앞서 말했듯이 줄눈이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바닥과 타일 등을 이용해 정사각형이 반복되는 바닥, 즉 줄눈이 반복되는 바닥으로 나뉜다. 그는 이동을 위한 공간의 바닥 줄눈은 사람의 이동 방향과 45도 틀어져있고, 머무르는 공간의 줄눈은 사람과 평행하게 하였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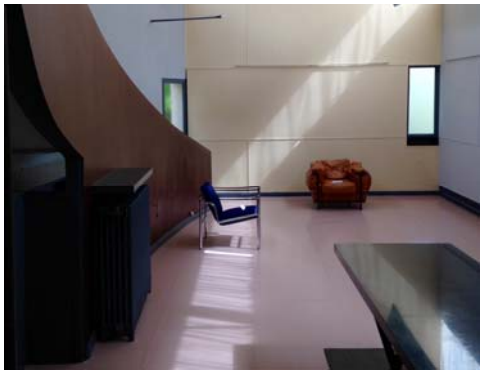


그림 4-12 르 코르뷔지에 건물의 바닥 (좌: 사보아 주택 홀, 우: 라로슈 주택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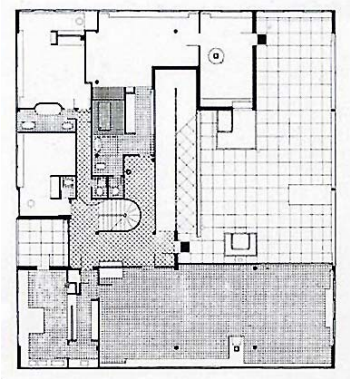


그림 4-13 사보아 주택의 바닥의 줄눈과 이를 표현한 평면

사보아 주택의 바닥에서 잘 나타나는데, 거실과 방들, 그리고 야외 발코니의 바닥 줄눈은 공간의 형태와 평행한 방향으로 있는 반면 1층 홀을 포함해 2층 동선 공간과 경사로의 바닥은 줄눈이 공간과 45도 틀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명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 중 인공 조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토는 조명 기구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공간에 만들고자 하는 빛의 성격을 고려하였다. 그는 1955년 비엔나 건축가협회 강연에서, 북유럽의 지리적 조건상 태양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공간 안으로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내부 공간에 빛이 부족함을 말하였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빛의 양뿐만 아니라 빛의 속성(quality)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42]

[그림 4-14]에서 그가 디자인한 조명 기구들은 빛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른 성격의 빛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위나 아래로는 강한 빛을 발하지만, 측면으로는 빛을 걸러서 사람들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 아래를 향하는 강한 빛은 대개 신체 위쪽에서 행동하는 영역을 밝힘으로써 사람이 밝은 빛에 에워싸이는 느낌을 일으키며,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역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림 4-14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다양한 조명 기구

르 코르뷔지에 다양한 조명 기구를 디자인하였다. 그 역시 일부 조명 기구의 경우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직접광은 가리면서 간접광을 통해 공간을 밝히게 하는 디자인을 하였다. [그림4-15]은 마르세유 위니테 다비타시옹(Unite d'Habitation)의 조명 기구 디자인을 보여준다. 철제 등갓의 곡면을 이용해 광원의 빛

42) Alvar Aalto(1955),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 in Göran Schildt ed., op. cit., p.177

을 반사시켜 주변을 밝게 하며 등갓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알토와 달리 코르뷔지에는 조명을 통해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을 형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보아 주택의 거실이나 라로슈 주택의 한 방을 보면 그에게 조명은 방을 밝히기 위한 도구였다.[그림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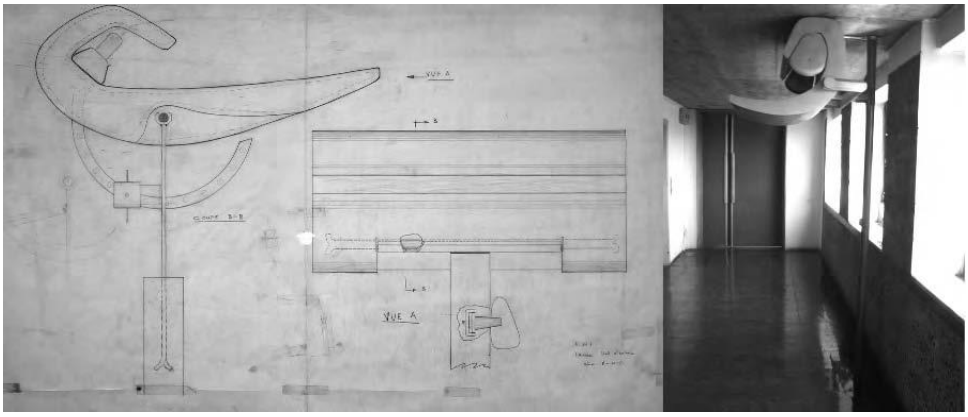


그림 4-15 마르세유 위니테 다비타시옹의 조명

그림 4-16 공간만을 밝히는 조명 (좌: 사보아 주택 거실, 우: 라로슈 주택의 방)

(3) 신체-영역 형성 요소가 일으키는 신체의 반응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신체-영역을 형성하는 건축 요소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발생시키는 감각은 전반적으로 촉각과 관련성이 높으며, 사람이 어떤 영역에 속해있다고 느끼는 감각인 영역감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신체-영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건축 요소들이 사람의 촉각적 반응을 강하게 또는 어느 정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토의 건축이 사람들에게 따

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는 이런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알토의 건축이 촉각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실내 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사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의 물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1957년 뮌헨에서 열린 <More Beautiful Housing>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알토는 건축이 시대에 따라 발달하면서,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더욱 단절되어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가 주택에서 실내외 장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집을 지으면서 발생한 내부 공간과 자연 환경의 접촉의 부재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43] 그가 실내 장식으로 많이 사용한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직물(fabric)들은 자연의 고유한 질감과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을 은유하는 요소였다.

그림 4-17 알바 알토가 설계한 주택에서 자연 요소를 은유하는 장식들
(좌:Kokkonen 주택, 우:알바알토 주택)

신체-영역에서 영역감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바닥, 기둥, 조명, 가구가 있다. 바닥은 앞서 살펴봤듯이 재료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각이 영역의 분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영역감을 일으킨다. 또한 바닥의 부분부분 놓이는 카펫들은 사람의 촉각을 더욱 자극하여 강한 영역감을 발생시킨다.

기둥은 건축 공간에서 그 자체의 조형이 갖는 힘이 강한 건축 요소다. 앞서 3.2.2 소절에서 알아봤듯이 기둥은 주변에 영역을 형성하고, 공간에서 오브제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그 공간의 환경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하기도 한다. 실내 기둥이 신체-영역의 형성과 집합에 미치는 영향은 이

43) Joan Ockman, Architectural Culture 1943-1968, p.252

후에 4.2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는 신체가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 요소로, 신체가 점유하는 영역을 분명하게 갖는다. 알토는 가구를 디자인할 때 신체와 맞닿는 여러 곳의 작은 영역들을 갖도록 하였다. 가구는 신체가 점유하는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놓이는 주변 공간의 환경과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침을 앞서 3.3.1. 소절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알토가 디자인한 가구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소재들이 모두 감각적이어서 그 안에서도 작은 신체-영역들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4.2. ‘신체-영역’의 집합 양상

4.2.1. 건축 요소에 의한 공간적 통합

신체-영역들은 항상 공유하는 건축 요소를 갖는다. 인접한 신체-영역들은 공유하는 건축 요소에 의해 하나의 큰 공간으로 통합된다. 사물과 신체의 관계들이 종합되어 형성되는 영역들은 그 사이에 명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약한 경계를 가지며 개별성을 가진다. 개별적인 신체-영역들은 같은 건축 요소에 의해 한 공간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집합한 신체-영역들은 서로 인접관계를 맺으면서 인접한 다른 신체-영역에 영향을 준다. 인접관계에 대해서는 4.2.3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소절에서는 건축 요소가 신체-영역들을 한 공간으로 집합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에서 거실은 가족구성원들이 모여서 교류하거나 손님을 접견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이다. 또한 거실은 난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앉는 정적인 공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주택에서 중심적인 공간으로서 집의 여러 공간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동선공간이기도 하다.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도 정적인 영역과 동적인 영역이 있다. 이 영역들은 목재 천장에 의해 거실이라는 한 큰 공간으로 통합된다. 거실을 구성하는 신체-영역 외부에서 바라볼 때 천장은 여러 신체-영역들을 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수평으로 높이가 일정한 천장 면은 그 아래에 높이가 다양한 신체-영역들을 한 공간으로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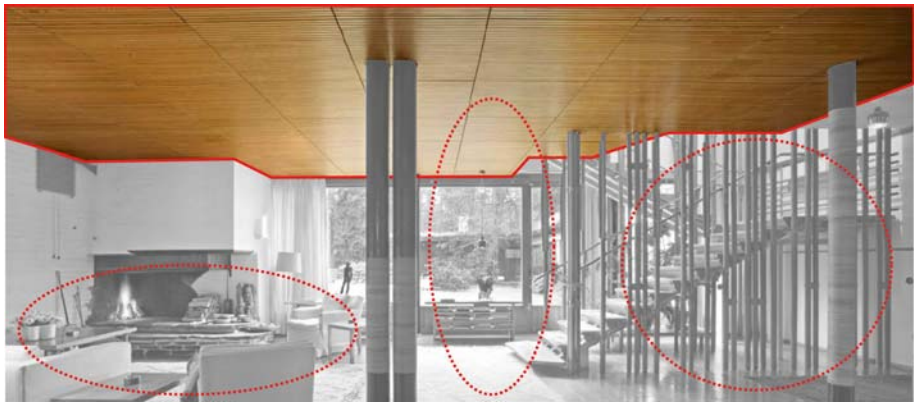


그림 4-18 마이레아 주택 거실 천장에 의한 공간적 통합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복도에서는 흰 천장 면과 중정을 향한 창문이 여러 신체-영역을 한 공간으로 통합하고 있다. 복도에는 창가 벤치에서, 문 앞에서, 대기의자에서 신체-영역이 형성된다. 복도 진행 방향에 따라서 거의 동일한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신체-영역들은 복도의 빛 환경과 바닥의 촉감, 방열기의 온기 등을 공유한다. 나아가 신체-영역들은 천장 면과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의 중정을 공유하면서 한 공간으로 통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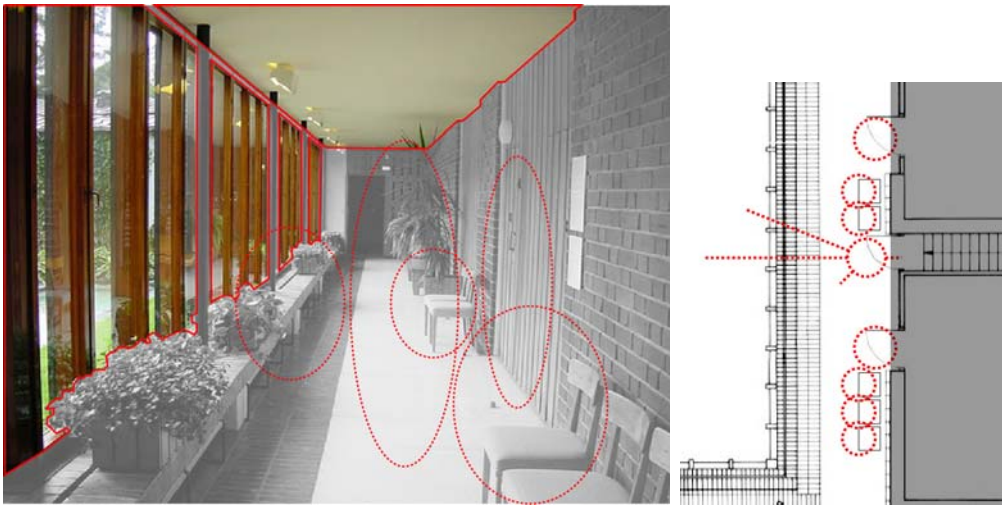


그림 4-19 세이나찰로 시청사 복도의 신체-영역들의 공간적 통합

4.2.2. 인접관계

앞서 살펴본 건축 요소에 의한 신체-영역의 공간적 통합은 인접한 신체-영역들이 집합하는 양상이다. 건축 요소에 의해 한 공간으로 집합하는 신체-영역들은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즉 한 신체-영역은 인접한 신체-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영역들이 모여 전체 공간을 이루는 건축에서 신체-영역들이 유기적으로 관계 맺으며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접관계에 있는 신체-영역들은 영역으로의 초대와 감각의 공유가 일어난다. 앞서 공간적 통합을 밝혔던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과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복도를 대상으로 인접한 신체-영역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8]에서 마이레아 주택의 거실에서 나타나는 신체-영역들의 집합을 보았다. 거실은 크게 난로 앞 영역, 동선 영역, 계단 앞 영역들이 집합하여 구성된다. 이 세 영역의 속성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난로 앞 영역	동선 영역	계단 앞 영역
중심성	-	-
머무름	움직임	움직임
어두움	밝음	조금 밝음
따뜻함	조금 따뜻함	
시선의 차단	시선의 개방	시선의 여과
카펫	카펫	타일

표 4-2 마이레아 주택 거실의 인접 신체-영역

난로 앞 영역은 중심성을 가지며 정적이고 머무르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인접한 동선 영역은 강한 중심성 없이 동적이고 움직이는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은 서로 자기 영역으로 초대한다. 한편 난로의 온기는 난로 앞 영역에서 가장 잘 느껴지지만, 동선 영역에서도 느낄 수 있고 더 멀리 떨어진 계단 앞 영역에서는 온기는 못 느끼지만 난로가 시각적으로 주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신체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은 그 출발점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감각의 등고선은 한 신체-영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인접한 신체-영역들에게까지 전

해지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인접 신체-영역들은 감각을 공유하게 된다.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복도에서도 여러 신체-영역들이 인접하면서 한 공간으로 집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림4-19] 여기서는 벽돌 벤치에서 형성되는 영역, 이동 영역, 문 앞 영역들이 모여서 복도 공간을 구성한다. 각 영역들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벤치 영역	동선 영역	문 앞 영역
머무름	이동	잠시 머무름
밝음	밝음	밝음
외부 공기	-	-
따뜻함	조금 따뜻함	조금 따뜻함
벽돌	석재	석재

표 4-3 세이나찰로 시청사 복도의 인접 신체-영역

복도의 인접한 신체-영역들은 빛의 밝기, 중정에 대한 시야 등을 공유하면서 집합한다. 벤치 영역은 다른 신체-영역들에 머무르며 외부와 가까운 영역으로 초대한다. 또한 벽돌로 만들어진 벤치와 바닥이 일으키는 질감도 초대하고 있다. 벤치 아래 방열기에서 나오는 온기는 벤치 영역뿐 아니라 복도 전체에 퍼져서 따뜻한 영역으로 초대한다. 문 앞 영역은 문손잡이가 행동을 암시하면서 인접 영역들을 초대한다.

이렇게 신체-영역들 사이에서 인접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는 신체-영역의 형성이 작은 사물들이 일으키는 '감각'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역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고 느슨하고 모호하다. 또한 영역의 형성 요소가 감각적이고 심리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멀리 가기도 한다. 즉 한 신체-영역을 형성하는 요소가 인접한 신체-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러 영역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신체-영역들의 인접관계로 형성되는 공간은 Weston이 말했던 '숲의 공간'처럼 영역 사이의 전이가 즉각적이면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중심이라고 느끼는 공간을 만든다. [44]

44) Richard Weston, Villa Mairea, Architecture in Detail, PHAIDON, 1992,

4.2.3. 건축 요소에 의한 맥락적 통합

인접하지 않은 신체-영역들도 건축 요소에 의해서 집합되어 한 건물을 구성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집합 양상은 신체-영역들이 최종적으로 전체 건축물을 구성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신체-영역을 맥락적으로 통합하는 건축 요소는 건물 내에서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기도 한다. 이는 각 신체-영역에 개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각 공간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20 신체-영역의 맥락을 통합하는 천장의 다양한 빛

마이레아 주택의 신체-영역들은 같은 목재 패널 천장에 의해 통합되는데, 천장의 빛의 성격에 의해 각 영역에 개별성이 부여된다. [그림4-20]은 같은 목재 천장에 다른 성격의 빛이 나타나는 모습을 종합한 것이다. 거실에서 난로 앞 모여 앉는 영역은 난로에 의해 자연광이 가려져 비교적 어두운 빛을 천장이 만들어낸다. 이는 앉아서 머무르는 낮은 신체-영역이 형성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내부 지향적인 신체-영역의 성격과도 맞는다. 그 옆에 이동하는 신체-영역은 북쪽을 향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천장 면과 공간을 밝게 만든다. 이는 동적이고 높은 신체-영역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밝은 빛이 운동의 지향성을 만들기도 한다. 거실의 계단 옆 영역은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계단을 지지하는 여러 개의 가는 목재들에 의해 걸러져서 전달된다. 이 성격의 빛은 숲에서 큰 나무들 사이로 빛이 비춰지는 모습과 닮았다. 이 신체-영역은 식당과 거실이 연결되는 동선에 위치하는데, 이 빛은 동선 방향과 나란하여 움직임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남쪽에 있는 '큰 거실'은 숲을 향해 두 면이 유리창으로 열려있고 거실과 달리 남쪽을 향하고 있어 따뜻한 빛이 깊숙이 들어온다. 이 영역은 나무를 닮은 여러 종류의 기둥들과 식물들이 있고 가는 목재를 이용해 만든 가구들이 놓여있어서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공간을 구성한다. 해질녘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서재의 천장 면에는 벽의 역할을 하

는 책장 상부에 만들어진 틈들을 통해 '큰 거실'의 빛이 서재 안으로 들어온다. Weston은 이 빛을 '숲의 수평 띠(조각)'이라고 표현하였다.[45] 거실의 계단 옆 빛과 마찬가지로 숲 속의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닮은 빛이 서재 천장 면에 들어온다. 이는 외부에는 작은 창들로만 연결되는 서재의 환경에 숲을 떠올리게 하는 빛을 만들어 줌으로써 서재의 분위기를 더 감각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레아 주택의 내부 공간을 이루는 신체-영역들은 기둥들에 의해서도 맥락적으로 통합된다. 실내에 있는 기둥들은 대부분 검은색으로 도색된 철제 기둥이다. 그런데 이 기둥들은 각 위치에서 모습을 달리한다. 알토는 이에 대해 '똑같은 기둥이 나열되어 만드는 인공적인 리듬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46] 실제로 이 기둥들은 지지 하중과 관계없이 철제 기둥 하나가 홀로 서기도 하고, 두 개, 세 개 등 여러 개의 다발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 분명한 방으로 구분된 1층 서재에 있는 기둥은 다른 기둥들과 달리 흰색 원형 콘크리트 기둥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르게 디자인된 기둥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변에 개별적인 영역들을 형성한다. 또한 기둥은 주변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림 4-21 신체-영역의 맥락을 통합하는 다양한 기둥

첫째로 거실 한 가운데에 있는 기둥은 두 개의 철제 기둥으로 되어있다. 두 기둥은 각각 바닥으로부터 50~100cm 높이에 등나무 줄기로 감겨있다. 두 기둥 나란히 서있어서 기둥을 기준으로 창가 쪽 영역과 반대쪽 영역의 구분을 일으켜 일종의 경계로서 작용하면서도, 사이의 틈으로 빛이 투과되어 그 경계성을 조금은 약화시킨다. 한편 두 기둥은 서있는 사람의 눈높이보다 낮고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높이 주변이 등나무 줄기로 감겨있다. 이는 이동하는 영역의 높은 신체-영역에서 난로 앞에 앉아서 머무르는 낮은 신체-영역의 사이에 위치하여 영역의 전이를 매끄럽게 이어준다. 또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무의 질감을 느끼게 해주고 시촉각적으로 따뜻함을 일으킨다.

45) Richard Weston, Villa Mairea, Architecture in Detail, Phaidon, 1992
46) Ibid.

다음으로 현관과 거실, 식당 사이에 위치하면서 각 공간을 잇는 공간에 놓여있는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은 주변에 현관문 앞 공간과 거실 공간을 나눠주는 가는 목재들과, 거실에 있는 계단을 지지하는 목재 부재들 사이에 위치한다. 한 개의 철제 기둥이 거의 전체적으로 등나무줄기로 감겨있는 모습은 주변 목재 부재들과 목재 패널로 된 천장과도 비슷하게 보여, 주변과 잘 동화된다. 또한 거실의 이동공간에 놓여서 움직이는 사람의 눈높이에 대응하고 있다.

셋째로 알토가 '큰 거실'이라고 이름붙인 영역에는 철제 기둥이 두 개, 세 개씩 다발을 이루는 기둥들이 있다. 이곳은 남쪽을 향하는 거실로 두 면에 창이 크게 나있고 창틀을 타고 식물이 자라는 공간이다. 기둥 하나는 두 개의 철제 기둥을 같이 등나무줄기로 엮어서 전체적으로 감아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세 개의 철제 기둥에 수직으로 긴 목재를 덧대어서 서양건축의 기둥에서 나타나는 플루트(flute) 같이 보이게 만들어졌다. 다발을 이루는 기둥들은 두꺼운 나무의 몸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빛이 풍부하고 바깥으로도 울창한 숲을 조망하는 이 영역에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든다. 두 기둥을 묶어서 만든 기둥은 거실에 두 기둥이 따로 서있던 기둥보다 영역의 경계를 더 강하게 형성한다. 등나무줄기가 만드는 면이 넓어서 면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만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서재 안에 있는 흰색 콘크리트 기둥은 마이레아 주택 1층에 있는 다른 철제 기둥들과 강하게 대비된다. 이 기둥은 서재의 독서 영역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공간에 중심성을 부여한다. 또한 플루트와 같은 처리를 하여 강한 빛을 반사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서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텍스쳐를 느끼게 한다. 매끈한 면보다 울퉁불퉁한 면이 눈에 더 편하고, 독서영역과 가까이에 접해있기 때문에 실제로 촉각을 자극할 수도 있다.

4.3. 소결

신체가 행동과 감각을 통해 다양한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 형성되는 신체-영역은 사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알바 알토가 주장했던 인간의 관점에서 기능적인 건축은, 바로 신체-영역의 형성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신체-영역은 건축을 사람의 몸에 딱 맞는 것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그가 추구했던 건축의 인간화(humanization)이다.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개별성과 집합성은 신체-영역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그것의 집합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 구성 과정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층위의 개별성과 집합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표로 정리하면 [표4-3]과 같다. 신체-영역을 형성하는 요소들부터 개별성과 집합성을 가진다. 이 사물(물질)들 각각이 일으키는 감각이나 행동, 치수들은 모두 개별적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물질-신체의 관계가 집합하여 하나의 신체-영역을 형성한다. 이 개별 신체-영역은 형성 요소를 공유하면서 중심성을 가지며 집합하고, 더 큰 신체-영역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체-영역은 반복과 인접 등의 방식으로 집합하여 더 큰 하나의 공간을 구성한다. 한편 신체-영역들은 개별적이지만 맥락적으로 유사한 건축 요소에 의하여 집합하게 되는데, 이것을 맥락적 통합이라고 이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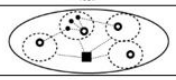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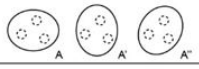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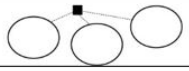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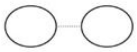
		개별성	집합성	도식
신체-영역 형성	단위	감각, 행동, 신체 치수	여러 감각의 통합	
	집단	단위 신체-영역의 개별성	영역 형성 요소 공유, 중심성	
신체-영역 집합	반복	신체-영역의 변형	동일한 형성 요소, 건축 요소 공유	
	공간적 통합	집단 신체-영역의 개별성	건축 요소 공유	
	맥락적 통합	공유 건축 요소의 변형		
	인접 관계	집단 신체-영역의 개별성	감각 공유, 영역으로의 초대	

표 4-4 신체-영역의 개별성과 집합성 정리

한편 신체-영역이 여러 단계에 걸쳐 집합하는 과정은 건축의 오랜 화제거리인 '부분과 전체'의 논의를 일으킨다. 신체-영역은 신체와 다양한 사물의 관계가 모여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신체-영역은 다시 부분이 되어서 신체-영역의 형성 요소를 공유하면서 중심성을 가지며 모여 더 큰 신체-영역을 이룬다. 이 큰 신체-영역은 다시 한 번 부분이 되어 여러 집합 양상을 보이며 공간이라는 전체를 이루게 된다. 이 공간들은 또다시 부분이 되어서 집합하여 전체 건물을 이루게 된다. 신체-영역을 이렇게 부분과 전체의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에 건축에서의 부분과 전체 논의를 확장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신체-영역은 알바 알토의 건축을 구성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물들이 신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합되어 공간화 되는 것이다. 건축 공간에 놓이는 여러 사물들이 신체를 구심점으로 모여들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신체-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알토의 건축은 신체-영역의 집합으로 완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5. 결론

알바 알토 건축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건축 형태, 공간 구성 방식 등에 집중했지만, 그의 건축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은 내부 공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알토의 건축은 따뜻한 건축이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건축이다. 그의 건축은 다른 어떤 건축가들의 건축 보다 내부 공간에서 건축물의 모습보다 공간을 채우는 크고 작은 사물들이 더 큰 존재감을 가진다. 알토의 건축에서 사람의 경험의 대부분은 이런 사물들 또는 사물들이 나타내는 현상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알토의 건축을 보며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가 사람의 다양한 기능, 말하자면 감각, 심리, 움직임 등을 고려한 사물들과 그것들이 모여 형성하는 영역에서 기인한다.

알바 알토는 당시 많은 건축가들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건축을 표준화하고 획일화하던 경향과 달리, 기술을 이용하되 인간의 삶과 최대한 괴리되지 않는 건축을 하고자하였다. 그는 건축을 구성하는 작은 사물들조차도 사람의 대상물이 됨을 중요하게 여겼고, 건물을 이루는 물질은 사람에게 좋은 현상을 전달해주고 불편을 일으키는 현상은 차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의 기본 단위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생각하였다. 기능주의적 건축이 어떤 행위를 위한 공간을 사고할 때 그 행위에 필요한 것들과 사람의 관계만을 조명했던 것과 달리, 알토는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을 두지 말고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편안함까지도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어떤 공간 안에서 사람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유기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숲의 공간'과 같은 건축을 추구했다.

알바 알토 건축의 개별성과 집합성은 '건축의 인간화'를 추구한 그의 건축적 사고의 결과이다. 특히 개별성을 중시한 그의 사상은 사람들을 집합으로 생각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존중받지 못하던 개별적인 개체들의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었

다. 그의 건축에서 사물들의 개별성은 사람의 감각을 포함하는 신체의 여러 속성에 대한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놓이는 공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축 요소는 신체와의 관계에 따라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문과 계단은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건축 요소로서 일련의 움직임을 위한 영역을 형성한다. 창문과 기둥은 일반적으로 신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다른 영역을 형성한다. 창문은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멀리에서는 주로 시각에 의해 내부와 외부에 거쳐 넓은 영역을 형성하지만 가까이에서는 더 다양한 감각에 의해 작고 구체적인 영역을 만든다. 끝으로 가구는 신체와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축 요소로, 신체와 가장 동기화된 영역을 형성한다. 그의 건축은 여러 사물들이 각자의 개별성을 가지면서 모여서 완성된다. 그는 근대 건축에서 잊혀져가던 개별적인 것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한편 '신체-영역'은 건축을 구성하는 가구, 재료, 빛 등의 요소들이 신체 주변에서 신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영역으로, 사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감각적 환경이다. 알토의 건축에서 사람이 활동하고 이동하는 동안, 건물을 이루는 여러 사물 중에서 신체와 관계 맺는 사물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때그때 새로운 신체-영역이 형성된다. 신체-영역은 '숲의 공간'이 실제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신체-영역은 앞서 살펴본 '활동 영역'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간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이다. 신체-영역을 만드는 요소들은 사람에게 행동을 암시하거나 특정 감각적 반응을 일으킨다.

신체-영역은 알바 알토의 건축을 완성시킨다. 신체-영역은 건물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사물들이 신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합되어 '공간화'되는 개념이다. 공간에 놓이는 여러 사물들이 신체를 구심점으로 모여들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신체-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여러 사물들이 집합하여 구성하는 알토의 건축은 '신체-영역'의 집합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Andrew Scott. *Northern Lights: The Positive Public Policy Example of Sweden, Finland, Denmark and Norway.* Monash Univ. Publishing. 2014

Flora Samuel. Le Corbusier in Detail. Elsevier/Architectural Press. 2007

Göran Schildt(ed). *Alvar Aalto in His Own Words*. New York: Rizzoli. 1997

Göran Schildt. *Alvar Aalto: The Decisive Years.* New York: Rizzoli. 1986

Herman Hertzberger. *Space and the Architect*. 010 Publishers. 2000

Herman Hertzberger. 안진이 역.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효형출판. 2009

Jari Jetsonen, Sirkkaliisa Jetsonen. *Alvar Aalto House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Joan Ockman. *Architectural Culture 1943-1968.* New York: Rizzoli. 1996

Juhani Pallasmaa, 김훈 역, 『건축과 감각』, Spacetime, 2012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80

Le Corbusier. 정진국·이관석 역. 『프레시지옹』. 도서출판 동녘. 2004

Marjo Holma(ed). *Architecture by Alvar Aalto no.5 Villa Mairea.* Alvar Aalto Museum. 2014

Michael Merrill. *Louis Kahn: On the Thoughtful Making of Spaces.* Lars Muller Publishers. 2010

Michael Trencher. *The Alvar Aalto Guid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aul Frankl. 김광현 역. 『건축 형태의 원리』. 기문당. 1989

Richard Weston(ed). *Alvar Aalto.* PHAIDON. 1995

Richard Weston. *Architecture in Detail: Town Hall.* Saynatsalo. Phaidon. 1993

Richard Weston. *Architecture in Detail: Villa Mairea.* PHAIDON. 1992

Richard Weston. 김광현·서울대건축의장연구실 역.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SEEDPOST. 2012

Robert Twombly(ed). Louis Kahn: Essential Texts. W.W.Norton & Company. 2003

Vincent Ligtelijn(ed). *Aldo Van Eyck Writings.* Birkhäuser Publishers. 1999

Sou Fujimoto. 정영희 역.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design house, 2012

학위논문

김현섭. <A Study on Alvar Aalto and His Experimentation in Villa Mairea>. Univ. of Sheffield 박사학위논문. 2005

박주원.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안웅희. <루이스 칸의 건축존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연속 간행물 및 학회지

김광현. "건축과 운동". 『이상건축』. 2000

Elisabeth Tostrup(1997). "The Influence of the 1930 Stockholm Exibition o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ism and Modernism in Norwegian Post-war Architecture". NORDISK ARKITEKTURFORSKNING Vol. 10. No. 4. 1997.4

John Roberts(2015). "Landscape and the Little Man: Aalto, the Institution and the Individual". SAHANZ 2015 Conference Proceedings. SAHANZ.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of 'Body-realm' in Alvar Aalto's Architecture

Advised by Prof. Kim, Kwang-Hyun

Choi, Dong-kwan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Body-realm' in Alvar Aalto's Architecture, a sensuous environment around the body and demonstrates the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in the formation process of 'Body-realm' and in the process of forming a whole building by collectivizing it. Thereby, this study informs the value of Alvar Aalto's architecture today.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interior-space of architec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Alvar Aalto's architecture. Due to the climatic nature of Finland, which has a harsh and long winter, Aalto had always worked to create a comfortable and human-friendly architecture, especially interior-space.

The reason why people feel warmth and comfort in the architecture of Alvar Aalto is because he regarded the various functions of human body, that is, their senses, psychological processes, and movement, as important in architecture. The starting point of his architecture, that

is, 'Body-realm', which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space unit, is the realm formed by various relations between objects constituting the space and body. 'Body-realm' begins with a sensuous relationship that forms between things and the body. Aalto has also carefully designed small objects such as furniture, doors, door handles, and so on. It is these objects causing sensory responses that make Alvar Aalto's architecture uniqu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meanings and significance of small objects in buildings and architectural elements that are not attracting much attention in the architectural world.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on Aalto's architecture focused on architectural forms and spatial composition methods, the essence of his architecture lies in the interior-space composed of various great and small objects. In Aalto's architecture, the various objects composing the interior-space of the building play an active role, as compared to the architecture of many other architects. Indeed, much of the experience people have in the Aalto's architecture consists of the phenomena represented by these objects.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ar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various aspects of Alvar Aalto's architecture. Aalt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ty, a characteristic of individuals, while modern architecture generally regarded people as a part of community and individuals as the average man. This kind of thinking appears in the form of assembling a building in keeping with the individuality of things in architecture. This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are found at various stages in Aalto's architecture, from the production of things to the relationship of things and bodies, and also the way in which the body-realms are gathered to form a whole building.

On the other hand, Alvar Aalto pursued human-friendly architecture by starting from making the closest environment to the body. From this point of view, Aalto seems to have understood the environment as a concept that starts from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body and extends to a building space close to the body, a larger space.

Alvar Aalto's architecture is a warm architecture for 'a little man'. He pursued architecture for even the smallest people on the streets and he respected the value of individual things. This architecture has many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 which must accommodate various demands in modern society where various values coexist.

key words : Alvar Aalto, object, body, realm, individuality, collectivity